

근대 일본의 동아시아 共通文化論의 궤적

—아시아주의와 세계사 교과서—

야마우치 마사유키(山内昌之)·후루타 히로시(古田博司)

들어가며 I. 戰前 동아시아 共通문화론	II. 戰後 세계사 교과서 집필자들의 동아시아 共通문화론 맺음말
--------------------------	---

들어가며

필자의 한 사람인 古田는 과거 《동아시아 이데올로기를 넘어서》¹⁾에서 4가지 형의 아시아주의를 析出한 바, 歐化論者의 아시아주의로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 1837~1919)·오카쿠라 텐신(岡倉天心, 1862~1913)·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 1863~1957)·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1838~1922)를, 壯士型 아시아주의자로서 다루이 도키치(樽井藤吉, 1850~1922)·미야자키 도텐(宮崎滔天, 1871~1922)·우치다 료헤이(内田良平, 1874~1949)를, 초국가주의자 아시아주의자로 기타 잇키(北一輝, 1883~1937), 이시하라 간지(石原莞爾, 1889~1949)를,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인터내셔널리즘의 아시아주의자로서는 오자키 호쓰미(尾崎秀實, 1901~1944)의 사상을 고찰한 적이 있었다.

거기에서는 連帶의 軸·歐化의 軸·優越의 軸이라는 세방향의 기준을 두고 각 유형을 배치하였다. 첫 번째 연대의 축은 동아시아와의 연대를 지향하는 벡터, 두 번째는 서구 자본주의 선진국과 소련 사회주의 종주국을 ‘中華’(정치, 경제, 문화 등의 중추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사용)로 하여 이들을 모방하여 가까워지려는 벡터, 세 번째는 동아시아에

1) 古田博司, 2003 《東アジア・イデオロギーを超えて》(新書館)

대한 일본의 ‘中華’ 주장인 우월의 벡터였다.

歐化論者 아시아주의자는 歐化와 優越의 축 사이에 분포하고, 壯士型 아시아주의자는 연대와 우월의 축 사이에 배치되고, 초국가주의적 아시아주의자는 마찬가지로 연대와 우월의 축 사이이지만, 전자보다 안정감이 없어 양 벡터 사이에서 소위 분열된 존재였다. 프롤레타리아 인터내셔널리즘의 아시아주의자로서 분명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戰前에는 오자키 호쓰미 단 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구화와 연대의 축 사이에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아시아주의자는 전후 냉전기에 걸쳐 급증하는데 소연방의 해체 이래 중주국을 잃고, 구화의 좌표점을 내리고 일거에 연대의 축 한 길로 접근해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상의 검토 결과로서 동아시아와의 자연적 연대감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願望으로서의 허구였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각적 우월감으로 부단히牽引된 각 유형의 아시아주의의 動態를 시사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들은 前掲書에도 있는 것처럼 중국 문학자이자 魯迅 연구자인 다케우치 요시미(竹內好, 1910~1977)가 편집한 《아시아주의》(1963) 속의 ‘아시아주의’의 정의에 따른 모델화를 시험해본 것이었다. 지금 다시 한번 그 정의를 들면 다음과 같다.

아시아주의는 앞에서 잠정적으로 규정했던 것처럼, 이러저러한 개성을 가진 ‘思想’에 경향성으로 부착되는 것이기에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떻게 割引하더라도 아시아제국의 연대(침략을 수단으로 하는가 여부를 불문하고)의 지향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만은 공통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최소한으로 규정한 아시아주의의 속성이다.²⁾

즉 다케우치는 아시아주의를 하나의 경향성으로 보고, 아시아연대의 지향성을 공통점으로서 하는 최소 속성을 석출한 것인데, 이 관점은 어디까지나 動態的인 것이다. 따라서 필자의 분석도 각 사상가의 언설에 내포된 연대 행동의 意思를 벡터로 推量하는 것이 되었고, 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세운 외재적 기준이 歐化度(지향)와 優越度라는 두 축이었다.

원래 일본의 아시아 인식으로서 아시아주의가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고찰된 것은 전후 20년이 가까이 된 1960년대의 일인데, 다케우치의 정의는 우선 아시아주의의 전체상을 고찰하는데 극히 의의 있는 지표였다고 오늘날에는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 이후 그러한 사상가들이 무엇을 가지고 동아시아와 일본의 공통성이라고 인

2) 竹內好 編, 1963 <解説> 《アジア主義(現代日本思想体系 9)》(筑摩書房) 14

식했던가 라고 하는 靜態的인 시점은 누락되어버렸다. 그들은 공통성의 명확한 인식을 가지지 못한 채로 아시아연대의 지향성을 경향적으로 띠었던 것일까?

필자가 고찰한 바로는 戰前의 사상가들은 확실히 거의 모두가 그러했다. 거의 모두가 動態로서의 아시아주의의 정치행동과 언동을 보여줄 뿐으로 동아시아와 일본과의 공통성 인식에 무언가의 깊은 관심을 보여준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전후가 되면 이 양자의 공통성의 인식이 탐구 의욕이 되어, 다시 동태를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전전의 많지 않은 동아시아 공통문화의 언설을 남긴 사상가들로부터 시작하여 거기서부터 전후에 어떻게 연관되어 가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I. 戰前 동아시아 공통문화론

1. 국가주의 아시아주의의 언설

사상가들이 남긴 언설자료를 근거로 하면, 동아시아와의 공통성을 명확히 서술한 논자로서, 전전에는 우선 기타 잇키(北一輝, 1883~1937), 오카와 슈메이(大川周明, 1886~1957), 나카노 세이고(中野正剛, 1886~1943) 3명이 거론될 수 있다. 아시아주의자라고 하기보다는 국가주의자로서의 사상 경향이 강한 사람들로서 동세대인이다.

기타 잇키는 大正·昭和期の 국가사회주의자로 사도(佐渡)에서 태어났다. 와세다대학 청강생이었고, 22세에 《國體論 및 純正社會主義》를 저술하고, 신해혁명에 관련하여 27세에 《支那革命外史》를 집필하였다. 후에 육군 청년장교와 관계가 깊어 2·26사건에 조연을 했다가 체포되어 군법회의에서 처형되었다.

오카와 슈메이는 昭和期の 국가주의자로 야마가타(山形)현에서 태어났다. 동경제국대학 졸업 후 남만주철도주식회사에 입사, 43세에 調査局 이사장이 되었다. 그 사이 일본 정신을 역설하여 5·15 사건에 연루되지만, 가출소되어 東亞經濟調査局 최고 고문에 취임한다. 전후에는 A급전범 용의로 체포되었다가 동경제판에서 發狂하여 입원, 면소가 되어 석방되었다.

나카노 세이고는 大正·昭和期の 정치가로 집안은 舊 후쿠오카(福岡) 藩士였다. 와세다대학 졸업 후 아사히신문사에 입사한다. 도야마 미치루(頭山滿) 등의 아시아주의자와 친교가 깊었고, 아사히 퇴사 후 34세부터 중의원 의원에 8회 당선되고, 국회에서 張作霖

폭살사건 추궁으로 두각을 드러냈다. 그 후 급진 파시즘으로 치달아 전체주의운동을 창도하여 大政翼贊會 상임총무가 되었다. 도조(東條)내각의 익찬선거에서 추천을 거부하고 당선된 후 反도조색을 강화하여, 1943년 倒閣기도의 건으로 검거되었고, 헌병대에서 석방된 직후에 할복자살하였다. 아래에서는 순서대로 그 언설을 보아가고자 한다.

우선 기타 잇키는 일본과 조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공통성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과 조선은 “국민생활의 근본인 사상에서는 (중략) 전연 동일 계통에 속하는 것”이고, “특히 순결한 조선인의 혈액을 다량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들과 문명교섭을 밀접하게 했던 왕조시대의 귀족에게 많은데, 지금 公卿華族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면모가 조선인과 대개 비슷한 것은 모두 그 類型을 보여주는 것이다.”³⁾고 서술한다. 중국에 관해서는 공통성을 서술하고 있지 않다. 기타는 심정적으로는 한일병합 찬성론자인데, 한편으로는 중국을 휩쓸어 넣은 대동아전쟁과 같은 큰 전쟁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는 견해가 있다.⁴⁾

다음으로 오카와 슈메이인데 그의 사상은 일본인 아시아주의자의 어느 한 유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선 첫째로, 그는 정치행동 이외에서는 동아시아와 동아시아 연구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고, 연구의 주요한 전문 분야는 인도문명 및 이슬람 문명이었다. 요컨대 전문은 동아시아가 아니고 전후에 남아시아·서아시아라고 통칭하는 지역이었다.

오카와는 인도독립운동에 관하여 《인도의 국민적 운동의 현상 및 그 유래》(1916)를 집필하여 인도의 현상을 일본에 전하였고, 당시 터키의 케말 파샤의 활약 등 이슬람 부흥에서 활력을 얻어 연구를 개시하여 후년 《回教概論》(1942년) 및 코란의 완역인 《古蘭》(1950년)을 간행하였다. 그 영향 하에서 이쓰즈 도시히코(井筒俊彦)과 마에지마 신지(前嶋信次) 같은 전후 일본을 대표하는 이슬람 연구자가 배출되었다.

그런데 동아시아에 관해서는 중국의 正史와 思想 이상의 것은 그다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오카와의 언설 중에서 동아시아 문화에 관하여 서술한 부분을 들어보기로 하자. 우선 조선과의 공통성인데, “그것을 내면적 즉 문화적으로 본다면, 일본과 조선은 모두 유교 및 불교를 정신적 근거로 하는 동양문명의 場인데다가, 인종적으로도 거의 同種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여서 彼我的 왕래는 건국 이전부터의 일이었습니다.”⁵⁾라고

3) 北一輝, 1919 <日本改造法案大綱> ; 1959 《北一輝著作集》Ⅱ (みすず書房) 331

4) 松本健一, <アジア主義と大東亞戦争－北一輝・大川周明・石原莞爾・中野正剛－> (東北アジアにおけるユートピア思想と地域の在り方研究会 講演會記録) 2007 《東北アジアアラカルト》 18 (東北大學東北アジア研究センター) 21

하여, 키타 잇키와 마찬가지로 당시의 ‘日鮮同祖論’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유교와 불교를 정신적 근거로 하는 동양문명의 같은 일원이라고 하는 해석도 당시의 ‘상식’ 범위 내에 있었을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공통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동양에서는 지나 및 인도의 사상·문화의 교류에 의해 일찍이 唐代에 동양문화의 성립을 보았고, 다음 宋代에 들어와서 程朱의 理學이 발생하여 마치 로마 교황이 중세유럽의 정신계에 군림하듯이 宋學이 인도를 제외한 동아시아 全域의 정신계를 지배하였다. 확실히 송학은 華嚴·禪·공자·노자의 諸說敎가 宋儒의 정신을 도가니로 하여 혼용된 위대한 사상체계인데, 그 때문에 두루 동아의 지도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마쿠라(鎌倉) 막부 이래 程朱의 교학이 정신계를 지배하였다. 일본이 송학의 지배를 벗어나기 시작한 것은 이토 진사이(伊藤仁齋)·오규 소라이(荻生徂徠) 등이 원시유교로의 복귀를 주창한 이후의 일이다.⁵⁾

동아시아 공통문화의 형성은 당대에 시작되어, 인도문명과의 교류가 그 성립의 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첫째이고, 다음으로 송대의 송학이 중국·일본의 정신계를 지배하여 공통의 정신문화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이 둘째이다. 셋째는 에도의 古學에 의해 일본이 그로부터 탈각했다고 하는 지적이다.

우선, 오카와는 조선시대의 유학이 宋學 일변도였고, 특히 주자학 이외에는 邪學시하여 양명학은 조선말기까지 거의 이단이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다. 알고 있었다면, 日·中·朝의 3자를 포함하여 동아시아의 공통의 정신문화를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송학이 에도의 古學과 國學에 의해 환골탈태되었던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本家인 중국에서도 주자학의 ‘엄숙주의’는 王陽明, 唐甄에 의해 해체의 단서가 열리고, 이 경향이 淸의 戴震에 의해 결정적으로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알고 있었다면,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송학의 정신계로부터의 탈각이 있었다고 서술했을 터이다.

당시 학계의 연구수준에서는 이 같은 사실은 당연히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오카와는 동아시아에 관해서는 지난 일본 지식인의 교양 정도 수준의 인식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여서 동아시아에의 관심이 그 정도로 높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이상으로 자명할 것이다.

계다가 위의 2 가지, 즉 唐代 동아시아 공통문화의 형성과 송대 정신문화 형성은 전후

5) 大川周明, 1931 <印度國民運動の由來> ; 1962 《大川周明全集》 제2권 (岩崎書店) 509~510

6) 大川周明, 1943 <大東亞秩序建設> 《大川周明全集》 2卷, 833

의 문부성 <學習指導要領> 해설서·세계사 향과 같은 지평에 있다.

당의 제도·문물에 접한 이웃 국가들은 그 자극으로 갑자기 눈을 떴다. 唐代의 일본·신라·발해·티베트·南照 등의 비약적 발전은 흡사 커다란 촛불에 의해 방의 구석구석까지 비취지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단원2).

송대에는 외방의 문화는 거의 수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래의 문화가 더한층 消化되고 비판되어, 유학·詩學·문학·공예 등의 발달이 현저하게 촉진되었다. 이리하여 宋은 무력으로는 동아시아의 국가들을 위압하지 못하였지만, 그 탁월한 문화로 후세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물론 일본·조선·안남 등의 諸國에 현저한 영향을 주었다(단원 3).⁷⁾

요컨대 당대 동아시아 공통문화 형성과 송대 정신문화 형성은 일본 지식계의 ‘상식’으로서, 전자는 당의 제도·문물, 후자는 송의 유학(송학) 등으로 대표되었다. 戰前 동아시아 공통문화론자라고 하는 것은 필시 평범한 상식적 지식인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터이다. 때문에 전전 아시아주의 사상가들은 정치행동과 언동에서 아시아연대의 경향을 보여줄 뿐으로, 동아시아와 일본의 공통성에 뭔가의 깊은 관심을 보여준 사람은 없었던 것이다. 많지 않은 사람이 상식으로 그것을 말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지식인들의 상식으로는 동아시아의 중추는 중국이고, 조선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것을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조선은 日鮮同祖論이라고 하는 별도의 개념으로 일본에 이미 포섭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로 나카노 세이고의 언설을 고찰한다. 나카노야말로 대동아전쟁의 고취자이자, 아시아 諸國을 거느리고 맹주 일본이 대동아전쟁을 영미와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파시스트이자 아시아주의자였다. 나카노는 다음과 같이 일본과 중국 사상의 공통성을 서술한다.

지나와 일본과는 사상상 교류하는 바가 있습니다. 먼 옛날에는 말할 것도 없이 명치유신의 원동력이 되었던 하나의 힘은 미토학(水戶學)이라고 합니다. 그 미토에 明의 朱舜水가 와서 漢籍을 강의하여, 그 節義忠孝의 설이 미토학의 원천이 되었고, 그것이 尊王到幕이라고 하는 명치유신의 근본 활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明 말에 망했지만, 최후에 빛을 발했던 동양 정신, 유교정신이 일본으로 이식되어 다시 싹을 틔웠다. 명치유신은, 나는 南宋과 함께 멸망하려 하는 明 등에서 가지고 온 이 유교정신이 흥하여 힘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⁸⁾

7) 文部省, 1947.7 《學習指導要領 東洋史編(試案)》; 國立教育研究所內戰後教育改革資料研究會 編, 1980 《文部省 學習指導要領6社會科編(3)》(日本図書センター) 수록 14·21

8) 中野正剛·杉森孝次郎, 1939 《全體主義政策·綱領》(育生社) 210

두 번이나 유교정신이 공통의 정신문화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때는 그것이 미토학이 되어 있다. 미토학은 미토번의 독특한 유교적 변용 사상이다. 본래 일본만의 변종 ‘유교’이고 동아시아 제국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또한 명이 멸망할 때 朱舜水가 원군요청을 위해 일본에 망명했는데, 당시의 미토번주 水戸光圀의 초빙으로 미토에 들어왔다. 그에 의해 명의 유학(양명학)이 미토학의 원류가 되고, 到幕사상이 되고, 명치유신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언설은 이노우에 데츠지로(井上哲次郎)·니토베 이나조(新渡戸稻造)·미야케 세쓰레이(三宅雪嶺) 등이 주최했던 陽明學會(1908년 설립)의 계보를 잇는 것이었다. 고지마 쓰요시(小島毅)에 따르면, 朱舜水를 통해 일본에 양명학의 정통이 옮겨왔다고 하는 사관은 《陽明學》회지 제10호에 실린 石東國(石崎東國)의 논문 <미토학과 양명학>에서 보이는데, 원래 다른 파인 양명학과 미토학이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관념되었다고 한다.⁹⁾

이상 기타 잇키, 오카와 슈메이, 나카노 세이고 라고 하는 동시대 아시아주의자들의 동아시아 인식을 검토하였는데, 그들이 동아시아와의 공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의 경우는 日鮮同祖論이고, 중국의 경우에는 유교였다. 유교에 관해서는 주자학을 중시하는 사람은 송학을 채택하고, 양명학을 중시하는 사람은 미토학에 傾注되기도 하여, 그 내용이 일정하지 않다. 요컨대 그들의 동아시아 인식은 에도시대에 漢籍에 의해 招來된 유교와, 한일병합의 정치사상의 일익을 담당했던 일선동조론이라고 하는, 당시 지식계급의 일반 상식을 한발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2. 西歐型 지식인 아시아주의자의 언설

전술했듯이 동아시아 공통문화를 말하는 언설을 남긴 戰前의 사상가는 많지 않다. 많지 않은 사람을 샅샅이 조사하는 작업을 하다보면, 몇 개의 時事국면에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그러모아 고찰하도록 하겠다. 우선 국가주의자와는 다른 장르인데 서구형 지식인 중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다.

‘近代의 超克’(《文學界》 1942년 9월호·10월호에서 기획되어, 9명의 기고문과 13명의 평론가의 좌담회) 회의가 對영미 개전이라고 하는 시국 하에서 明治 이후의 일본문화에 대대한 영향을 주었던 서구문화의 총괄과 초극을 표방하고, 1942년 7월 가와카미 데

9) 小島毅, 2006 《近代日本の陽明學》(講談社) 118

쓰타로(河上徹太郎)의 사회로 이틀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참가자는 주로 경도학과(世界史哲學)의 철학자, 舊 ‘일본낭만파’ 동인, 《文學界》 동인의 문학자, 평론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자료를 보면 참가자로 쓰무라 히데오(津村秀夫)가 ‘東亞文化圈’이라는 어휘를 3번, ‘大東亞文化圈’이라는 어휘를 한번 사용하고 있다. 쓰무라(1907~1985)는 영화평론가로 효고현(兵庫縣) 고베시 출신. 1931년에 동북제국대학 독문과를 졸업하고, 아사히신문사에 입사하여, 이 신문의 영화비평란을 담당하였다. 전후에는 ‘아사히 카메라’지의 편집을 맡았다.

언설 중에서 동아시아와 관련된 것을 추출하면, “신 유럽문화가 독일을 중심으로 구축될 운명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구축되고 있는 바이지만, 동아문화권에서는 일본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고, 또한

아메리카니즘이 장래의 동아문화권 건설에 대하여 얼마나 보이지 않는 장애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동아문화권으로서는, 佛印을 제외하고, 태국, 말레이, 동인도, 필리핀은 물론, 지나 대륙에서조차 오늘날 과연 어느 정도의 유럽문화가 살아있을까? 소위 근대정신이 어느 정도 살아있을까? (중략)

곧 최대의 적은 아메리카니즘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속을 찢어 보면, 물질문명, 기계문명의 발달에 어떻게 하여 인간정신은 싸워야만 하는가 하는 명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메리카류의 개인주의라든가, 향락주의 등 세상에서 말하는 것의 근처에는 이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¹⁰⁾

라고 하여, 동아문화권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범위로 佛印, 타이, 말레이시아, 인도차이나, 필리핀, 중국 대륙을 포함하고 있다. 대동아공영권¹¹⁾에서 남사할린, 만주, 조선이 빠져있는데, 거의 대동아공영권 남부지역을 동아문화권과 치환한 것

10) 津村秀夫, 1942 <何を破るべきか> <近代の超克> 《文學界》 9월호, 29·31·37

11) 제2차 近衛내각의 外相 松岡洋右(1880~1946)는 “明治維新 이래 일본이 동양 제민족에게 그 處를 얻게 하고, 동양의 안정을 위해 싸움을 계속한 것은 사실이다.”[松岡洋右, 1940 《興亞の大業》(教學局) 9고 하였고, 東條英機(1884~1948)는 제97회 제국의회에서 “대동아전쟁의 목적이 각국 각 민족에게 ‘각각 그 處를 얻게 하고’, ‘皇國을 핵심으로 하는 대동아공영권을 건설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朝日新聞》 1942年 1월 22일 1면). 이로부터 ‘대동아공영권’이 황국을 中華로 하여 제민족 제국가를 황국에의 충성을 기준으로 주변을 차등적으로 위치 짓는 체계라는 것은 명확하다. 이 사상에서 儒禮를 기준으로 중화의 주변의 제민족과 제국가를 차등적으로 위치짓는 華夷秩序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 상세한 것은 古田博司, 2003 《東アジア・イデオロギーを超えて》(新書館) 73 참조.

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럽이 나치독일에 의해 신문화권을 구축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에 의한 신문화권이 아메리카니즘의 배제라고 하는 공통 명제 하에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反美사상의 力能을 가진 공동권으로서의 ‘동아문화권’을 말하고 있다.

이 ‘동아문화권’이라고 하는 어휘는 전후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학습지도요령 제1기(1946~1952)부터 등장하여 60년대까지 지속된다. 아래의 ①과 관련하여 내용과 범위 모두 없다. ②~④의 山川出版社 교과서에서는 唐의 제도·문화의 전파지역이 동아문화권이라고 하였고, 범위는 일본, 신라, 발해, 티베트(吐蕃)로 되어있다.

① 1951년 문부성 김정필, 東北大學 명예교수 문학박사 大類伸 감수, 東京大學 조교수 吉岡力 외 편집, 1951.11 《高等世界史》(好學社)

② 村川堅太郎·江上波夫·林健太郎著·史學會 편, 1952.6 《再訂 世界史》(山川出版社)(김정년, 발행년 불상. 東京大學 교수 村川堅太郎·東京大學 교수 江上波夫 저, 《世界史》와 내용이 같다)

③ 村川堅太郎·江上波夫·林健太郎 저, 1960.3 《詳說世界史》(山川出版社)

④ 村川堅太郎·江上波夫·林健太郎 저, 1967.3 《詳說世界史(개정판)》(山川出版社) 1963년 문부성 김정필. 1966년 개정 김정필)

추측해보면 ‘東亞文化圈’이라는 말은 戰中期까지 일본에 존재하여 대동아공영권을 달성하고자 하는 지역까지, 말하자면 당위로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있었지만, 전후에는 어휘만이 잔존하여 오카와에게 보이는 것처럼, 지식계의 상식으로서의 범위와 내용으로 축소된 것일 터이다. 조선이 무시되지 않고 부가된 것은 한일병합이 終戰으로 끝을 고하여 日鮮同祖論이 퇴조했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戰前의 한국 연구의 성과가 전후에 전파되었다는 점, 또한 한국전쟁으로 반도가 클로즈업되었던 것도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¹²⁾

12) 덧붙여 말하면, <近代の超克>기획에서 동아시아 관련 내용을 말하고 있는 사람은 니시타니 게이 지(西谷啓治, 1900~1990) 뿐이다. 니시타니는 石川縣 출신으로, 京都大學 문학부 철학과에서 니시다 기타로(西田幾多郎)에게 사사하였다. 1932년 동 대학에서 교편을 잡다가, 1937년부터 2년간 독일유학을 마쳤고, 전후 공직에서 추방되었다가, 추방이 해제된 이후에는 교토대에 복귀, 63년에 정년퇴임했다. 니시타니는 독일 신비주의 연구자로서 동양사상과 參禪에 의한 ‘니힐리즘의 초극’을 과제로 하였다. ‘근대의 초극’에는 ‘<近代の超克>私論’을 기고했다. 내용은 無我·無心으로 표현되는 동양의 주체적 無의 종교성만이 근대 서양의 종교성의 막다른 상태를 타파하는 도덕적 에너지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일본의 ‘신으로서의 道’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세계신질서 수립과

또 다른 서구형 지식인 아시아주의자로서 미키 기요시(三木清, 1897~1945)가 거론된다. 미키는 효고현 출신으로 경도제국대학에서 니시다 기타로(西田幾多郎)에게 사사했다. 1922년 독일에 유학하여 리케르트로부터 역사철학을 배우고, 후에 대학을 이적하여 하이데거에게 사사, 실존철학을 연구하였다. 귀국 후 1930년대 후반에는 고토 류노스케(後藤隆之助),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磨) 등의 친구들을 따라 ‘昭和研究會’에 참가하고, 文化問題研究會 위원, 政治動向研究會 위원이었다. 1938년 고노에 정권의 ‘동아신질서 건설’ 성명에 촉발되어 동아협동체론을 둘러싼 논쟁이 일어나자, 그 논객이 된다. 1940년 《哲學入門》을 써서 10만부가 넘는 베스트셀러를 기록하였고, 戰時 홍보에 협력한 후 1945년 치안유지법 위반자를 숨겨주어 검사의 구류처분을 받아, 토요타마(豊多摩) 형 무소로 옮겨져 옥사했다.

미키 기요시의 동아시아 공동문화는 극히 간결한데, ‘禮儀’이다. 1941년 7월 《東亞聯盟》에 게재된 ‘謙讓論’에 따르면,

謙讓은 禮儀의 정신으로서 예의라고 하는 것은 나쁜 평등에 의해서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나쁜 평등은 도덕적 무질서를 결과하는 것이므로 예의는 도덕적 질서 그 자체이다. 謙虛는 나쁜 평등관을 넘은 가장 깊은 평등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곧 동양도덕의 근저에 있는 無我的 사상에 서 있다. 我執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道를 쫓는 것이다. 도에 사는 자는 바로 謙讓한 데가 있다. 도에 사는 것은 비굴하지도 않고, 겁쟁이도 아니고, 무기력도 아니다. 겸양은 道義 그 자체이다. 세상에 道義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겸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겸양은 無我이고, 무아가 되어야 진정한 和가 있다. 개인간의 和 뿐만 아니라 민족간 和도 겸양으로 얻어진다. 여기에 동양 古來의 철학과 도의를 근저로 하는 民族協和의 기초가 있다고 말해야 한다. 동양 도덕에서 禮라고 하는 것이 근본이었다는 것은 그 사회가 개인적인 사회가 아니고, 협동사회였다는 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겸양을 중시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협동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물론 금일 봉건적 협동사회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 새로운 질서에는 새로운 禮儀가 있어야 한다. 겸양이 취하는 형태도 새로운 것이 아니면 안된다¹³⁾

—讀하면, ‘근대의 초극’의 참가자, 주 12)에 있는 니시다니 게이치(西谷啓治)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두 명 모두 니시다에게 사사하여 니시다 철학의 영향 하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동양 도덕의 근저를 無我的 사상에 두는 것이다. 게다가 미키

대동아 건설의 과제는 오직 앵글로색슨의 지배를 벗어나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일본의 도덕적 에너지에 의해서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파하는 것이었다(西谷啓治, 1942 <《近代の超克》私論> <近代の超克> 《文學界》 9월호, 6~18).

13) 三木清, 2007 <謙讓論> 《三木清 東亞協同體論集》(こぶし文庫) 138~139

기요시는 겸양이야말로 무아이고, 민족협화의 기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동양 도덕으로서의 예가 협동사회를 형성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미키 기요시 동아협동체의 핵심이 되는 동아시아 공통문화론이었다.

그런데 오늘날의 연구 수준에서 볼 때 동아시아의 ‘예’는 일본의 겸양 등의 예의에 관한 것이 아니다. 고대의 《儀禮》경전에 있듯이 중국에서 예라고 하는 것은 作法에 관한 것이고 관습에 관한 것이다.

오규 소라이가 “예는 천하 만사의 의식이다. 이를 배우면 오늘날 사람들이 吉良·小笠原 등의 諸禮故實을 배우는 것과 같다”¹⁴⁾고 한 것은 바로 중국의 禮에 관한 것인데, 간단히 말하자면, 의식에서 가옥의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는가, 서쪽 계단으로 올라가는가, 방의 동서남북 어디에 공물을 진열하는가 등의 세레머니 매너를 말하는 것이다. 일본의 ‘예의’에 해당하는 것은 거의 없다. 도덕이라고 한다면 仁義禮智信 동일 것이다. 그런데 그 의미 내용도 다르다. 겸양이라고 한다면 맹자의 四端의 하나인 ‘辭讓’이 가까울지 모르지만, 그것은 당위이고 당시 그것이 실천되었다는 보증은 없다.

간단히 말하자면, 미키 기요시도 동아시아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였다. 예의 정도는 동아시아와 일본은 같을 것이라고 하는, 일본인의 ‘상식’적 추측으로 말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서구형 지식인 아시아주의자의 언설을 보면 동아시아 공통문화의 인식도 국가주의자 아시아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일본의 상식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그들은 동아시아 사정에는 무지한, 다케우치 요시미가 말한, 아시아연대라고 하는 경향성만을 가진 아시아주의자였다.

Ⅱ. 戰後 세계사 교과서 집필자들의 동아시아 공통문화론

1.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의 아시아 공통문화론

우선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다음과 같이 제1기부터 제7기로 나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구분을 전편에 걸쳐 이용하고자 한다.

14) 荻生徂徠, 《經子史要覽》, <經要覽> 禮記

제1기 (1946년~1952년 김정교과서 개정연도는 교과·발행자에 따라 다르다)

제2기 (1953년~1961년 김정교과서 개정연도는 교과·발행자에 따라 다르다)

제3기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1960년 고시, 1960.10 시행, 1963년도 교과서 사용)

제4기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1970년 고시, 1973.4 시행, 1973년도 교과서 사용)

제5기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1978년 고시, 1982.4 시행, 1982년도 교과서 사용)

제6기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1989년 고시, 1994.4 시행, 1994년도 교과서 사용)

제7기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1999년 고시, 2003.4 시행, 2003년도 교과서 사용)

일본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는 학습지도요령에 1973년(제4기)부터 2002년(제6기)까지 ‘동아시아문화권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항목이 있었다. 이 ‘동아시아문화권’이라는 개념은 앞 장에서도 말한 것처럼 戰前에는 ‘동아문화권’이라 하였고, 山川出版社(이하, 山川)의 교과서에서는 60년대까지 잔존하고 있다가, 그 한편에서 그와 나란히 ‘동아시아문화권’이 점차 이를 대치하였던 것이다. 이 ‘동아시아문화권’이란 어휘는 2003년 이후의 지도요령에서는 없어지지만 山川교과서에서는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다. 학습지도요령의 해설서를 이하 시대 순으로 고찰해 보자.

제1기(1946~1952)에는 동아시아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하는 이론은 아직 없지만 일본·신라·발해·티베트·南詔 등에 당의 문화가 미쳤다는 것을 서술한다. 당 문화는 북조와 남조 문화의 융합으로 서방과의 교류로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한다. 당 문화의 국제성이 일본을 서방과 연결했다는 점에도 착목한다. 이하 자료를 들어 보자.

“당의 제도·문물에 접한 사방의 나라들은 그 자극으로 갑자기 눈을 뜨기 시작했다. 唐代的 일본·신라·발해·티베트·南詔 등의 비약적인 발전은 마치 큰 촛불에 방안 구석까지 밝게 비춰지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 생각건대 漢代에 일단 결실을 맺은 중국의 문화는 외부 민족의 침입을 계기로 華北·華南 양 지역에서 각각 특수한 발전을 이루었고, 수당을 지나며 이 양자를 합한 위에 한층 더 국제적 성격을 갖추었다. 일본이 서방 문화와의 연결을 가지게 되었던 것도 唐과의 교통에 의해서이다.”

(단원 2, 요지, 14쪽) (문부성, 1947.7 《學習指導要領 東洋史編 (시안)》 國立教育研究所 內 戰後教育改革資料研究會 編, 1980 《문부성 학습지도요령 6(社會科編3)》 (日本圖書센터에 실림).

제2기(1953~1961)에도 동아시아를 일괄하여 문화권으로 하는 이론은 아직 없다. 한편 동아시아와 일본을 분별하는 시각(일본의 특수성)의 강조와 평형을 맞추는 것으로서

세계사의 보편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는데,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해 서술하는 아래 자료를 들어보자.

“중국인·한국인 등 동양인과 우리 생활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b)고등학교 세계사, III 세계사 참고단원, 1. 참고단원 題目例, 제1단원, 내용1.(2) 61쪽 “근대 이전의 여러 국가의 발전 사정을 이해함으로써 역사 발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할 것”

(同, 제1단원, 목표3, 68쪽) [문부성, 1952.3 《중학교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편 III(a) 일본사 (b)세계사 (시안)》 1951년 개정판 (明治圖書出版)]

제3기(1960년 고시, 1960.10 시행, 1963년도 교과서 사용)에는 문화권별 학습단위를 제안하였는데, 그 중에서 당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동아시아문화권이 처음 권장되었다. 그러나 문화권을 몇 개의 특정한 유형으로 통일하는 것은 신중하게 회피되었다. 이하 자료를 들어보자.

“중국의 귀족적 문화의 발전과 동서 문화의 교류’에서 동서 문화의 교류에 대해서는 수·당 시대의 것에 한정하지 말고 漢代 이후의 동서 교통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때 동아시아문화권이 당 제국 시대에 거의 大成했던 것에 주목케 하고, 또 일본 문화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2장 4절, 3내용, (2)중국사회의 전개와 이슬람 세계의 형성, 111쪽)

“세계사를 몇 개의 문화권으로 구분하는 시도는 이미 종래부터 꽤 많은 학교에서 실시되어 교육성과도 오르고 있으므로 그러한 實情으로부터 (3)과 같은 유의사항을 부연 설명했다. 그러나 학습지도요령으로서 특별히 일정한 유형을 보여주는 것은 피하고자 했다. 이것은 문화권을 나누는 방법에서도 여러 유형이 나오고 있고, 특정한 유형으로 통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2장 4절, 4 지도계획 작성 및 지도상의 유의 사항, (2)문화권별 내용 구성에 대해서 119쪽) [문부성, (초판)1961.4.15, (5판)1964.1.20 《고등학교학습지도요령해설 사회편》 (好學社)]

제4기(1970년 고시, 1973.4 시행, 1973년도 교과서 사용)에는 문화권을 묶는 방법과 동아시아문화권의 학습이 지도되었다. ‘오리엔트 문화’, ‘지중해 문화’, ‘인도 문화’, ‘이란 문화’, ‘중국 문화’의 5개 문화 묶음을 제시하고, 또 ‘동아시아문화권’, ‘서아시아문화권’, ‘유럽문화권’ 이라는 3개의 문화권이 거론되었다. 그리고 동아시아문화권이 정의되기 시작했다. 유교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권으로, 중국의 남북 문화와 서방 문화가 융합하여 당 문화로 되었는데, 당 문화는 귀족적·국제적이며, 당 문화가 전파된 지역이 동아시아문화권이 되었다. 범위는 발해·신라·일본·돌궐·위구르·티베트·吐蕃·南詔 등 제1기

의 당 문화가 미친 범위에 새로이 돌궐·위구르가 추가되었다. 여기에서 학습지도요령은 山川出版社의 교과서를 대체로 따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하 자료를 들어보자.

“그 하나는 최근 새로운 연구 성과를 받아 들여 문화권별 구성을 채용한 것이다. 이것은 학생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 것 외에 서유럽이나 중국사에 치우치기 쉬웠던 종래의 경향을 고쳐 각 문화권의 특색 및 문화권 상호 관련을 고찰케 함과 동시에 세계 역사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분명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것을 내용상 구체적으로 보면, 내용 (1)에서는 ‘오리엔트 문화’, ‘지중해 문화’, ‘인도 문화’, ‘이란 문화’, ‘중국 문화’ 등 5개의 문화 묶음이 제시되고, 또 내용 (2)에서는 ‘동아시아문화권’, 내용 (3)에서는 ‘서아시아문화권’, 내용 (4)에서는 ‘유럽문화권’으로 3개의 문화권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 개정 전에 비해 크게 변한 점이다”(제2장, 제4절 세계사, 1 과목의 성격, (2)내용의 구성과 특색, pp.144~145)

“여기에서 동아시아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사회·문화 등이 전파·보급된 지역의 묶음을 가리키고 있다. … 동아시아문화권의 형성에 대해서는 唐이 화북의 북아시아 제민족의 제도와 강건한 문화, 강남 漢민족의 귀족사회와 그 아름다운 문화를 융합하고, 그 위에 인도, 이란, 이슬람, 그리스 등 서방의 여러 문화를 수용하여 국제적 색채가 풍부한 문화를 출현시킨 것에 유의하게 한다. 게다가 당 문화가 동아시아 각지에 전파·보급되어 발해·신라·일본을 비롯해 몽골의 돌궐·위구르, 티베트의 토번, 雲南의 南詔 등이 당의 여러 제도·문물을 받아들여 각각의 국가체제를 정비하여 번영하였다. 여기에서 당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문화권이 형성되어 발전해 갔던 것에 유의하게 한다”(2장 4절, 3 내용, (3)동아시아문화권의 형성과 발전, 155~156) [문부성, 1972.5.25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 사회편》 (大阪書籍株式會社)]

제5기(1978년 고시, 1982.4 시행, 1982년도 교과서 사용)에는 동아시아문화권은 당연히 존재해야 할 所興의 것이 되어, 18세기 후반 경까지 일관하여 존재했다. 당과 같은 체계적 법전을 편찬·시행한 것이 실증된 나라는 일본뿐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접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또 다른 문화권의 유형은 다양하게 생각해야 할 거리가 되었고, 3개의 문화권에 더해 인도·동남아시아를 독립 문화권으로 하는 것이 제기되었고, 한편으로 베트남이 새롭게 동아시아문화권으로 들어왔다. 이하 자료를 들어 보자.

“(2) 동아시아문화권의 형성과 발전. 유목민족의 활동과 중국의 사회·문화. 중국의 사회·문화의 변천과 인접 여러 민족의 발전. 중화제국의 번영”(사회, 제3 세계사, 2 내용 (2), 21쪽) “(a) 각 문화권 역사의 발전과 특색을 파악케 하고 문화권으로의 묶음에 착목케 할 것. (c) 문화권 묶음 방식에 대해서는 ‘지리’와의 관련에 유의함과 동시에 예컨대 인도나 동남아시아를 독립한 문화권으로 취급하는 등의 다양한 창의적인 사고를 할 것”(사회, 제3, 3 내용의 취급, (1) 22쪽) (문부성, 1978.8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附 학교교육법시행규칙 (抄)》)

“(2) 동아시아문화권의 형성과 발전 / 유목민족의 활동과 중국의 사회·문화, 중국의 사회·문화 변천과 인접 여러 민족의 발전, 중화제국의 번영 / 여기에서는 유목민족과의 접촉을 통해

독자의 사회·문화를 구축했던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권이 형성되어 발전해 갔던 모습을 대략 18세기 후반 경까지 일관해서 취급한다. … 우선 농경 생활과 유목 생활의 상호 접촉을 통해 중국에서 형성되고, 인접한 여러 지역에 큰 영향을 준 율령체제 등의 학습을 통해 동아시아문화권의 특색을 이해시킨다. … 중국문화를 수용하면서 점차 자국의 문화를 형성해 간 일본과 기타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해 착목하게 한다. … 수·당 문화의 영향을 받아 성립한 동아시아문화권에 대해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문화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일본·신라·발해 등 농경세계에 한정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수·당과 싸워 쇠퇴한 돌궐, 이에 대신한 위구르, 티베트의 토번, 중국 통치하의 베트남 등도 포함하여 생각한다”(같은 장 같은 절, 2 내용과 그 취급, (2) 동아시아문화권의 형성과 발전, 89~92쪽) [문부성, 1979.5.31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 사회편》 (一橋出版株式會社)]

제6기(1989년 고시, 1994.4 시행, 1994년도 교과서 사용)에는 동아시아문화의 특색으로서 한자와 유교를 강조한다. 또 문화권 사이의 교류에 착목하여 교류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기했다. 문화권 학습에 배당된 시간수와 학생의 학습 부담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추측된다. 또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종전보다 한층 더 중시하도록 하여 근린제국조항(1982.11.24 교과용 도서 검정 기준)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 문화권은 종래의 3개에 남아시아·동남아시아를 새로이 넣어 4개로 하고 그 독자성을 명확히 했다. 이하 자료를 들어 보자.

“(c) 인접한 문화권 상호의 접촉이나 교류를 파악하고 문화의 다양성이나 복잡성도 이해시킨다. 그 때 지중해 지역, 인도양 지역, 중앙아시아를 문화교류권으로 설정하는 등 접촉과 교류를 시간적 공간적으로 파악하도록 강구할 것. (d) 내용의 (2), (3) 및 (4)에서 제시했던 문화권 이외에도 문화사적으로 묶을 수 있는 지역을 문화권 학습에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때 전체 배당 시간 수나 학생 학습 부담을 고려할 것”(2절 2관, 同 제2, 3내용의 취급, 27~28쪽) (문부성, 1989.3 《고등학교학습지도요령 附 학교교육법시행규칙(抄)》)

“a 동아시아와 중국문화/ 동아시아 풍토와 여러 민족, 한자문화, 유교와 국가 등에 착목케 하여 동아시아의 역사·문화의 특색을 이해하게 한다”(제2장 각 과목, 제1절 세계사A, 2 내용과 그 취급, (1) 여러 문명의 역사적 특질, 17~18쪽)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깊은 관련이 있어 종전보다도 한층 더 중시하도록 한다”(同 章 同 節, 同 2, 同 (2), c, 58쪽) “문화권은 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유럽 등 4개를 내용으로 제시했다. 남아시아, 동남아시아는 종전 내용에서는 서아시아 중에서 다루었지만, 이번에는 ‘(3)서아시아·남아시아의 문화권과 동서교류’에 中項目 ‘c 남아시아·동남아시아 세계의 전개’를 두어 문화권으로서의 독자성을 명확히 했다”(同 章 同 節, 3 지도계획의 작성과 지도상의 배려 사항, (2) 문화권학습의 전개, a 문화권 설정, 85쪽) [문부성, 1989.12.25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 지리역사편》 (實教出版株式會社)]

제7기(1999년 고시, 2003.4 시행, 2003년도 교과서 사용)에서는 학습내용의 증대를 고

려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문화권 중심의 학습지도가 완전히 방기되었다. 그러나 당은 정치제도와 문화를 정비하여 주변 여러 나라와의 사이에 안정된 관계를 맺어 명실공히 동아시아 세계를 형성했다고 하여, 동아시아문화권은 동아시아세계로 고쳐졌다. 이하 자료를 들어보자.

“a 동아시아 세계/ 동아시아의 풍토와 여러 민족, 한자문화, 유교,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체제에 접하여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세계의 특질을 파악하게 한다”(제2절 지리역사, 제2관 각 과목, 제1 세계사A, 2 내용, (1) 여러 지역 세계와 교류권 24쪽) [문부과학성, (초판 1999.4.5, 개정판 2004.1.20, 2007년 3월 개정판) 《고등학교학습지도요령 附 학교교육법시행규칙(抄), 중등교육학교 등 관계법령(抄)》1999년 3월 고시, 2003년 5월 일부 개정, (2004년 4월 일부개정, 2004년 12월 일부개정, 2006년 12월 일부개정, 2007년 3월 일부개정) (國立印刷局)]

“문화권에 따른 구성은 昭和 45년 고시의 학습지도요령 이래 취해진 것인데, 그것이 목적한 다원적 세계사 구성은 거의 정착했지만, 그 한편, 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의 여러 문화권 내용을 충실히 하려고 했기에 세계사 전체의 학습 내용이 증대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에서는 지역세계별 구성으로 하였다. ‘세계사B’의 내용에서 제시된 지역 세계에는 서아시아·지중해세계, 남아시아세계, 동아시아·내륙아시아세계, 이슬람세계, 유럽세계 등이 있다. 지역세계는 시간적 스케일의 취급 방식, 동시대사적 횡적 연결 중시라는 점에서 문화권과 다르다”(2장, 제2절 世界史B, 1 과목의 성격과 목표, (2)개정 요점, 43~44쪽) (문부과학성, (초판)1999.12.28, (일부 補訂 2판)2005.5.30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 지리역사 편》 (實教出版株式會社)

이상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 ‘동아시아문화권’은 제3기에 권장되고 제4기에 지도되고 제7기에 방기되었다. 이 사이 제5기에는 唐과 같은 체계적 법전을 편찬·시행했다는 것이 실증된 것은 일본뿐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접 지역에 허구의 ‘율령체제’가 확대되었다.

‘동아시아문화권’의 지역은 제3기까지는 일본·신라·발해·티베트(토번)·南詔였지만, 제4기에 돌궐·위구르가 추가되고, 제5기에는 베트남이 더해졌다. 이렇게 ‘동아시아문화권’은 자의적으로 팽창했던 것으로 역사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동아시아문화권’의 공통문화는 제3기에는 당 문화(중국 남북 문화의 융합과 서방 문명의 합체에 의한 귀족적이며 국제적인 문화)이고, 제4기에 유교가 더해지고 제6기에는 한자와 유교가 강조되었다. 그리고 제7기에 문화권 자체가 방기되고 ‘동아시아세계’로 고쳐졌다. 이 ‘동아시아세계’의 내실은 당의 정치제도 및 문화, 주변과의 외교관계이다.

세계 문화권의 數도 시대에 따라 변화했다. 제3기에는 문화권을 특정하는 것에 소극적이었지만, 제4기에는 ‘동아시아문화권’, ‘서아시아문화권’, ‘유럽문화권’의 3개였다가, 제5기에는 ‘남아시아·동남아시아문화권’이 더해져 4개가 되었다. 문화권 자체도 제7기

에 포기되었다.

더 정리하면, ‘동아시아문화권’은 우선 唐 문화의 전파지역으로서 시작되었는데, 그 지역이 일본·신라·발해·티베트(토번)·南詔였다가, 돌궐·위구르에도 당 문화가 파급되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2개가 늘고, 유교가 문화요소로서 강조되었기 때문에 또한 베트남이 더해졌던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제5기에 베트남이 추가된 원인으로 NIES의 성장과 ASEAN의 경제적 발흥이 있었던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동아시아문화권’이란 애매한 개념이며, 동아시아 공통문화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도 지역을 획정하는 것도 결국은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끝까지 이 개념을 지배하고 있던 것은 戰前과 마찬가지로의 일본 지식인의 ‘상식’에 지나지 않았다. 그 결과 파탄나고 포기되기에 이르렀다.

2. 山川出版社 세계사 교과서의 아시아 공통문화론

山川出版社의 세계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제1기부터 제7기에 걸쳐 총 11책을 분석했다. 그 중에서 《世界史》, 《詳說 世界史》 계통은 9책, 《世界の歴史》, 《新世界史》 계통은 2책이다.

《世界史》, 《詳說世界史》 계통은 제1기부터 제6기에 걸쳐 집필자가 거의 바뀌지 않았다. 村川堅太郎·江上波夫·林健太郎가 그 집필진이다. 제7기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집필진이 바뀌어 佐藤次高·木村靖二·岸本美緒 외 수 명으로 되었다. 반세기 동안 집필진이 바뀌지 않았던 것이다. 덧붙여서 말하면 이들 전원이 東京大學 문학부 관계자이다.

‘東亞文化圈’이란 용어는 제1기부터 있고, ‘동아시아문화권’이 제2기부터 병행하여 쓰이기 시작하여 제7기까지 계속된다. 문화권의 내용은 당 제도와 당 문화인데, 당 제도의 전파 지역이 없는 것이 4책 있다. 일본·신라·발해라고 쓰인 것이 6책, 일본·신라라고 한 것은 1책이다.

당 문화 전파 지역을 《世界史》, 《詳說世界史》 계통에 한정하여 말하면, 1952년 판에서는 일본·신라·발해·티베트(吐蕃), 1957년 판에서는 일본·신라·발해에다가 애매한 지역으로 위구르·티베트·南詔가 추가되었다. 애매한 지역이란 전파 내용을 분명히 쓰지 않은 채로 다만 지역명이 병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960년 판에서는 일본·신라·발해·티베트(吐蕃), 1972년 판에서는 일본·신라·발해·티베트(吐蕃)·南詔에, 애매한 지역으

로 베트남(越南·安南)이 추가되었다. 1982년 판에서는 일본·신라·발해·티베트(吐蕃)·南詔에, 애매한 지역으로 베트남(越南)이 들어가고, 또한 조공국으로 캄보디아(真臘)·참파(林邑·環王)·수리비자야(室利佛逝)가 들어갔다. 집필자가 바뀐 2006년 판에서는 일본·신라·발해·南詔에, 애매한 지역으로 돌궐·위구르·티베트(吐蕃)가 추가되었다. 계통이 다른 1977년의 《世界の歴史》에서는 일본·신라에, 애매한 지역으로 돌궐·위구르·티베트(吐蕃), 그리고 2007년의 《新世界史 改訂版》에서는 일본·신라·티베트(吐蕃)·南詔에, 애매한 지역으로 突厥·베트남이 들어갔고, 캄보디아(真臘)·참파(林邑·環王)·수리비자야에 대해서는 동아시아와는 관계없이 ‘인도문화권’에 속한다는 귀속을 명확히 하였다. 당 문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귀족 취미와 異國정서가 기본이고 국제적이라고 말을 바꾼 것이 3개 있을 뿐이다. 이러한 문화 내용으로 어떻게 ‘동아시아문화권’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인지 매우 의문이며 그 결과로서 문화권에 포함된 지역은 자의적으로 증감되었고, 전과된 문화 내용이 애매한 지역이 항상적으로 활용되었다. 1980년대에 문화권이 동남아시아까지 갑자기 팽창한 것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와 마찬가지로, NIES의 성장과 ASEAN의 경제적 발흥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동아시아문화권’의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서 당의 제도와 문화의 전파 지역이라고 한 것과 당 문화의 전파 지역이라고 한 것이 혼재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는 율령제의 체계적 전파와 편찬·시행이 실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山川出版社의 교과서에서는 이를 어기지 않으려고 일본만의 율령국가 성립을 말하고 있다. 이 점은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에 비해서 크게 평가할 수 있는 점인데, 일본의 율령국가체제를 설명하지 않고 唐制만을 말한 것이 1권, 唐風으로서의 일본의 율령국가체제를 설명한 것이 1권이다. 아쉬운 것은 집필진이 바뀐 제7기에 이르러 “동방의 조선과 일본에서는 조공 제도를 통해서 당의 율령체제·都城制·불교문화 등을 받아들여 스스로 국가 정비에 활용했다.”(p.90)고 하여, 율령체제가 실증되지 않은 고대 한국에도 율령체제가 있었다고 처음 쓰고 있다는 점이다.

山川의 교과서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관계에 대해서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山川의 교과서를 뒤쫓고 있다는 상황이 명료하다. ‘동아시아문화권’이란 말은山川에는 제2기부터 있는데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는 제4기에 처음으로 지도 항목이 된다. 또한 ‘동아시아문화권’으로서 베트남이山川에서는 제4기에 등장하는데,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는 제5기에 새로 들어간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는 제7기에 ‘동아시아문화권’ 지도를 포기하는데, 2007년판 《詳說世界史B(改訂版)》에서는 ‘동아시아문화권’론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世界史》, 《詳說世界史》 계통 외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이하에서 자료를 제시하겠다. ①부터 ⑧은 분석을 위한 주요항목이다.

① 당 제도의 전파 지역, ② 당 문화의 형성, ③ 당 문화의 특징, ④ 당 문화의 전파 지역, ⑤ 문화권 설정 설명, ⑥ 애매한 지역, ⑦ 일본의 독자성, ⑧ 특징적인 이데올로기 및 기타.

제1기(1946~1952)

(1) 村川堅太郎·江上波夫·林健太郎 著, 史學會 편, 1952.6 《再訂 世界史》(山川出版社) (검정년, 발행년 미상, 東京大學 교수 村川堅太郎·東京大學 교수 江上波夫 著, 《世界史》와 내용적으로 동일하다.)

→ ① 당 제도의 전파 지역은 일본·조선·발해 ② 당 문화는 남북융합이며 서방과의 교류로 국제적 ③ 당 문화의 특징은 귀족취미와 異國情緒 ④ 당 문화의 전파 지역은 일본·신라·발해·티베트(吐蕃) ⑤ 당 제도·문화의 전파 지역이 동아시아문화권 ⑥ 없음 ⑦ 일본의 국가 형성에는 唐制의 채용이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했지만 율령에 대한 설명은 없음 ⑧ ‘수당의 영향에 의해 동아시아 제 민족이 각성하여 독립’, ‘문화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제2기(1953~1961)

(2) 검정년 실려 있지 않음. 村川堅太郎·江上波夫·山本達郎·林健太郎 著, 1957.4.5 《改訂版 世界史》(山川出版社)

→ ① 없음 ② 당 문화는 남북융합 ③ 당 문화의 특징은 이국적 요소를 섞어서 국제 색이 짙은 종합적 귀족문화 ④ 당 문화의 전파 지역은 일본·신라·발해 ⑤ 당 문화의 전파 지역이 동아시아문화권 ⑥ 위구르·티베트(吐蕃)·南詔 ⑦ 일본의 율령국가 성립 ⑧ 중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나’라고 한 점

(3) 村川堅太郎·江上波夫·林健太郎 著, 1960.3 《詳說世界史》(山川出版社)

→ ① 일본·조선·발해 ② 남북 융합이며 서방과의 교류로 국제적 ③ 귀족 취미와 이국정서 ④ 일본·신라·발해·티베트(吐蕃) ⑤ 당 제도·문화의 전파 지역이 동아시아문화권 ⑥ 없음 ⑦ 일본의 율령국가 성립 ⑧ ‘수당의 영향으로 동아시아 諸民族이 각성하여 독립’, ‘문화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제3기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1960년 고시, 1960.10 시행, 1963년도 교과서 사용)

(4) 1963년 문부성 김정필, 1966년 개정판 김정필, 村川堅太郎·江上波夫·林健太郎 저, 1667.3 《詳說世界史(개정판)》(山川出版社)

→ 장 제목만 ‘동아시아문화권’으로 되어 있다. 다른 인용 個所는 모두 1960년 판과 동일한 기술이며 본문 속에서는 ‘동아문화권’이란 말을 쓰고 있다.

제4기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1970년 고시, 1973.4 시행, 1973년도 교과서 사용)

(5) 1972년 문부성 김정필, 東京大學 명예교수 村川堅太郎·東京大學 명예교수 江上波夫·東京大學 명예교수 山本達郎·東京大 학장 林健太郎 저, 1977.3 《詳說世界史(신판)》(山川出版社)

→ ① 당 문화와 諸制度는 주변 제 민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제도의 전파지역은 없으며, 굳이 말하자면 일본의 울령뿐 ② 남북 융합이며 서방과의 교류로 국제적. ③ 귀족 취미와 이국정서 ④ 일본·신라·발해·티베트(吐蕃)·南詔. 한편 신라의 골품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⑤ 당의 제도·문화의 전파 지역이 동아시아문화권 ⑥ 베트남(越南·安南)이 처음 등장 ⑦ 일본의 울령국가 성립 ⑧ ‘수·당의 영향을 받은 동아시아 제 민족은 각성.’

(6) 神田信夫·柴田三千雄 저, 1977.3.5 《世界の歴史》(《世界史》, 《詳說世界史》와는 다른 계통, 1977년부터 시작)

→ ① 일본·신라 ② 육조에서 시작된 귀족문화 성숙, 외래문화 융합 ③ 귀족문화·외래문화 ④ 일본·신라 ⑤ 없음 ⑥ 돌궐·위구르·티베트(吐蕃) ⑦ 일본의 울령국가 성립 ⑧ 문명권에 대해 머리말에서 말하고 있지만, 장 제목에는 ‘동아시아세계’를 채용. ‘인접 諸國의 자립’이라고 하여 주변국을 말하고 있다. 신라의 골품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서술하고 있다.

제5기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1978년 고시, 1982.4 시행, 1982년도 교과서 사용)

(7) 1982년 문부성 김정필, 村川堅太郎·江上波夫·山本達郎·林健太郎 저, 1983.3 《詳說世界史(신판)》(山川出版社)

→ ① 없음 ② 남북 융합이며 서방과의 교류로 국제적 ③ 귀족 취미와 이국정서 ④

일본·신라·발해·티베트(吐蕃)·南詔 ⑤ 당 문화의 전파 지역이 동아시아문화권 ⑥ 베트남(越南). 한편, 당의 조공국으로 캄보디아(真臘)·참파(林邑·環王)·수리미자야(室利佉逝)가 등장 ⑦ 일본의 율령국가 성립 ⑧ 60년 판부터 이어지던 ‘개설’이 없어졌다.

제6기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1989년 고시, 1994.4 시행, 1994년도 교과서 사용)

(8) 1993년 문부성 검정필. 村川堅太郎·江上波夫·林健太郎·成瀬治 지, 1994.3 《詳說世界史(신판)》(山川出版社) → 완전히 위와 동일하다.

제7기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1999년 고시, 2003.4 시행, 2003년도 교과서 사용)

(9) 2006.3.20 문부과학성 검정필. 佐藤次高·木村靖二·岸本美緒 외 3명 지, 2007.3.5 《詳說世界史B(개정판)》(山川出版社)

→ ① 일본·조선은 조공으로 당 제도(율령체제·都城制)·문화(불교문화)를 도입. 발해는 관료제와 도시계획 도입. 신라에 대해서는 당의 관료제를 도입했지만, 사회의 기반은 골품제라고 하는 씨족적 신분제 ② 주변지역의 다양한 요소를 받아들였다. ③ 국제적 ④ 일본·신라·발해·南詔 ⑤ 당 문화의 전파 지역이 동아시아문화권 ⑥ 돌궐·위구르·티베트(吐蕃) ⑦ 일본의 율령국가체제 성립 ⑧ 당 제도 도입의 설명이 상세한 점. 그 외, 집필진이 젊은 층으로 바뀌었다.

(10) 2006.3.20 문부과학성 검정필. 佐藤次高·木村靖二·岸本美緒 외 4명 지, 2007.3.5 《高校世界史(개정판)》(山川出版社) → 거의 위와 동일.

(11) 2007.3.22 문부과학성 검정필. 柴田三千雄·弓削達·辛島昇·斯波義信·木谷勤·近藤和彦 외 5명 지, 2007.3.5 《新世界史 改訂版》(山川出版社) (《世界史》《詳說世界史》와는 다른 계통. 1984년부터 시작)

→ ① 일본·신라·발해. 신라에 대해서는 당의 관제를 도입했지만 사회는 골품제 ② 남북통일과 세계제국 건설 ③ 국제색이 가득한 문화 ④ 일본·신라·발해·티베트(吐蕃)·南詔 ⑤ 동아시아문화권이 없고 소멸했다. ⑥ 돌궐, 베트남. 당의 조공국인 캄보디아(真臘)·참파(林邑·環王)·수리미자야에 대해서는 인도 문화권에 속한다고 해서 귀속을 명확하게 했다. ⑦ 일본의 율령국가체제, 唐風이라는 말이 추가 ⑧ 인도문화권을 설정하여 동남아시아 조공국을 당 문화에서 분리한다.

3. 他출판사 세계사교과서의 아시아공통문화론

1) 동아시아공통문화로서의 ‘율령’ 전파 기술에 대하여

타출판사 세계사교과서에 대해서는 제1기부터 제7기에 걸쳐 1951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32책을 분석하였다. 미리 말하면 안스러운 정도로 동아시아공통문화 탐색의 시도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율령이 당에서 동아시아제국에 전파되었다고 확인하는 교과서가 32책 중 11책 존재한다. 이것은 山川의 교과서에서도 제7기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에 걸친 일을 기록한 《三國史記》에 ‘율령’ 내지 그 編目名이라고 생각되는 것과, 새로운 율령으로 改變한 조문을 집성한 법전을 가리키는 ‘格’이라고 하는 문자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들 용어는 법령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어로 볼 수 있어서 적어도 당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의 ‘율령’을 통일신라 이외의 한반도의 諸國이 편찬·시행했던 적은 없었고, 당과 마찬가지로의 체계적인 법전을 편찬·시행했던 것은 당시로서는 일본뿐이었다고 실증되어 있다. 그럼에도 1/3이 확인하는 사태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일련 번호	전파지역	저자	서명	출판사	검정년	발행 년	사용 하한
3	신라·발해·남 조 등	千代田謙·增井經夫	《世界の歴史》	三省堂	1954	1955	1956
4	동아시아 諸國	原隨園	《世界史》	教育圖書	1954	1955	1958
5	신라·발해·일 본	上原專祿·江口朴郎·太 田秀道·西嶋定生·野原 四郎	《高等學校社會科 高校世界史》	實教出版	1955	1956	1958
12	일본·조선	高山一十·今堀誠二 외 4 명	《世界史B》	修文館	1964	1965	1967
23	신라→일본	西川正雄·矢澤康祐 외 10명	《世界史B》	三省堂	1993	1994	1997
24	동아시아지역	池田溫 외 13명저	《詳解 世界史》	清水書院	1994	1995	2004
25	南詔·신라	鶴見尙弘·遲塚忠躬 외 9 명	《高校世界B》	實教出版	2003	2004	현재
26	신라·일본	西川正雄·中村平治·矢 澤康祐 외 15명	《世界史B改訂版》	三省堂	2006	2007	현재

29	당의 근린제국	向山宏 10명	《改訂版世界史B 人, 暮らしがあふれ る歴史》	第一學習社	2006	2007	현재
31	한반도·일본열 도 등의 당의 주변 제지역	川北稔·青野公彦·重松伸 司·清水和裕·小杉泰·吉 澤誠一郎·杉本淑彦·杉山 清彦·桃木至朗 著	《新詳世界史B》	帝國書院	2006	2008	현재

자료의 일련번호 (5)의 “이리하여 동아시아에서는 당을 중심으로 하는 율령국가군이 성립하는데 당은 그 종주국으로 자임하고 있었던 것이다”, (23)의 “신라는 (중략) 또한 율령제를 정비하고 국가불교를 발전시켰다. 이 율령제와 불교문화는 일본에도 전해졌다”라고 하는 기술은 사실을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아시아주의의 이데올로기가 스토리를 유도한 좋은 예일 것이다.

(5)의 집필진 중의 우에하라 센로쿠(上原專祿)와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는 李成市の 《東アジア文化圏の形成》에 따르면 同志이다. 우에하라 센로쿠는 당시 일본인이 미국의 정치적 종속 하에서 이대로는 전후의 아시아·아프리카 諸國과 직접 마주할 수 없고, 그래서 진정한 세계사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 1956년 《日本國民の世界史》를 집필하여 유럽적 가치의 일원성이 아닌, 제지역의 다원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복수의 역사적 세계를 제기하였다. “니시지마씨는 우에하라씨의 문제의식에서 啓發되고, 이를 공유하고, 매우 현실적인 과제에 얽혀 들어가면서 우에하라씨와 함께 8년에 걸쳐 세계사 교과서의 작성에 종사하였다.”고 한다.¹⁵⁾

우에하라 센로쿠는 당시 히토 쓰바시대학 교수(1899~1975), 日教組國民教育研究所 초대 소장, 니시지마(1919~1998)는 당시 東京大學 조교수, 57년부터는 교수였다. 니시지마는 《岩波講座 日本歴史 제2권(古代2)》(1962년)에 실린 <6~8세기의 동아시아>라고 하는 논문에서 중국의 국내체제인 봉건제를 外延化한 것으로서 수당시대의 책봉체제를 인식하고 이를 기조로 하여 중국과 결연된 지역이 ‘동아시아’라고 서술했는데, 그 후 그러한 관점에서 ‘동아시아세계’의 형성과 변용의 과정을 묘사한 <동아시아는 무엇인가>(1967 《東洋史入門》 有斐閣)를 통해 논리의 체계화를 시도하였고, 1970년에 발행된《岩波講座 世界史 권4(동아시아세계의 형성)》의 모두 논문인 ‘총론’에서는 한자문화·불교·유교·율령을 동아시아의 공통문화로 정의하였다.

오늘날에야 전후 반미좌파 학자와 아시아주의 학자가 세계사 교과서를 재료로 아시아

15) 李成市, 2000.3 1판 1쇄, 2001.2 1판 2쇄, 《東アジア文化圏の形成》(山川出版社) 38

주의라는 메타이야기를 창조했다고 간결하게 논평할 수 있지만, 양자의 當爲에서는 대미중속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애처로운 감정이 강하게 느껴진다. 전후 아시아주의자는 戰前 국가주의자와 민족주의 우파가 대동아전쟁의 좌절로 인해 아시아에 대한 관심에서 크게 후퇴하는 것에 반비례하는 것처럼, 당초 민족주의와 반미사상을 가진 학자 중심의 좌파로 재등장한 것이었다.

일련번호(23) 집필자인 니시카와 마사오(西川正雄, 1933~2008)는 東京大學 교수, 유럽 근현대사 특히 사회주의운동사가 전문이고, 야자와 야스스케(矢澤康祐)는 專修大學 문학부 교수, 1997년의 朝鮮學會의 회원명부에 의하면 한국근세사·한일관계사가 전문이다.

2) 당 문화의 고정적 특징과 전파지역의 자의적 팽창·축소

동아시아 공통문화의 기반을 만들었다고 하는 당 문화의 특징에 대해, 32책 중 28책이라는 거의 전부가 국제적, 세계적, 국제색, 국제성 등, 요컨대 인터내셔널하다는 내용의 것이고, 이하의 4책만이 특수하다.

(19) 1981.3.31 문부성 김정. 土井正興·小倉芳彦·阪東宏·小島晋治 著, 1982.3.30 《新世界史》(三省堂) 초판 → 없음

(23) 1993.2.28 문부성 김정. 西川正雄·矢澤康祐 외 10명 著, 1994.3.3 《世界史B》(三省堂) → 귀족으로부터 해방된, 신흥지주 등의 새로운 지식인 문화

(24) 1994.2.15 문부성 김정. 池田溫 외 13명 著, 1995.2.15 《詳解 世界史》(清水書院) 초판 → 한자, 유교, 불교, 율령 등의 독자문화

(31) 2007.3.22 문부과학성 김정필. 川北稔·青野公彦·重松伸司·清水和裕·小杉泰·吉澤誠一郎·杉本淑彦·杉山清彦·桃木至朗 著, 2008.1.20 《新詳世界史B》(帝國書院) → 전반은 외래색이 농후한 귀족 취미적, 후반은 복고적이고 강력함을 중시하는 문화

당 문화의 전파지역 및 애매한 지역은 제1기의 학습지도요령에 등장하는 ‘일본·신라·발해·티베트·南詔’를 기본으로 하여 각 교과서가 천차만별인데, 법칙성을 검출할 수가 없다. 자료를 뒤에 게재했으니 이를 참고했으면 한다. 새로운 지역을 처음으로 추가한 교과서를 다음에 게재하여 둔다.

(6) 京都大學 교수 貝塚茂樹·一橋大學 교수 増田四郎·東京教育大學 교수 小竹文夫·朝日新聞社 논설주간 笠信太郎 著, 《世界史B》(自由書房) 63년 발행, 64년까지 사용 → 에

매한 지역으로 돌궐·위구르가 처음 추가되었다. 제4기 학습지도요령(1970년 고시, 1973.4 시행, 1973년도 교과서 사용)의 돌궐·위구르의 추가 지시보다 빠르다. 그 후 (7) 1963 문부성 검정 和田清·山中謙二 저, 《高等學校 世界史B》(日本書院)(표지에 64년 발행, 66년까지 라는 메모가 있다)에서는 돌궐·위구르는 확정지역에 들어간다. 이 교과서의 “돌궐과 위구르, 특히 위구르는 唐 문화의 수입에 매우 열심”이라고 한 것은 극히 독자적인 견해인데, 근거는 없다.

(10)1963.4.20 문부성 검정, 榎一雄·堀米庸三 저, 1964.1.20 《標準高等世界史》(講談社) →확정 지역에 安南(베트남)이 처음으로 들어간다. 제5기 학습지도요령(1978년 고시, 1982. 4시행, 1982년도 교과서 사용)의 베트남 추가 지시보다 빠르다.

(13)1963. 4. 22 문부성 검정, 1966.4.11 개정 검정, 東京教育大學 교수, 문학박사 酒井忠夫·東京大學 교수 高橋幸八郎 외 3명 저, 1967.3.25 《改訂 世界史B》(秀英出版) 개정 초판 →확정 지역에 林邑, 애매 지역에 占城(참파)·眞臘(크메르인의 국가)·수리비자야가 처음으로 추가된다. 학습지도요령에 이러한 첨가 지시는 없지만 山川에서는(7)1982년 문부성 검정필, 村川堅太郎·江上波夫·山本達郎·林健太郎 저, 1983.3 《詳說世界史》 신판(山川出版社)에서 애매 지역으로 베트남(越南), 당의 조공국으로 캄보디아(眞臘)·참파(林邑·環王)·수리비자야(室利佉逝)가 등장하고 있다. 山川보다 20년 전에 시작되어 그 후에도 애매지역으로서 일련번호(14),(17), (18)과 70년대를 살아남았고,(27)에서 조공국으로 참파·수리비자야가 2000년대에 재등장하였다.

요컨대 여기에서도 ‘국제적’인 唐문화는 확정지역·애매지역을 자유자재로 변환시켜 變幻自在하게 팽창하기도 축소하기도 했던 것이다. 山川는 신중하게 시대적 요청에 응하여 동아시아문화권 지역을 팽창시켰던 것에 비해 他社의 교과서는 보다 기준이 애매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아시아문화권’, ‘동아시아세계’에서의 文化論과 國際關係論의 相剋

반복하지만, 본 장에서 조사 대상이 되는 교과서는 57년간 32책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가운데 어느 정도가 ‘동아시아문화권’을 사용했는가를 산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학습지도요령이 ‘동아시아문화권의 형성과 발전’이라고 하는 指導 항목을 내걸고 있던 1973년(제4기)부터 2002년(제6기)까지 타사 교과서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는지를 개관하여 보자.

일련번호 (16)부터가 제4기인데, 자료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문부성 지도와는 반대로 ‘동아시아문화권’ 학습은 前시대의 고양기를 마치고, 이미 권태기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술은 점점 정형화 되고, (17)에서는 굳이 동아시아문화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문화적 분류를 말하고, 각국의 당 문화 수입에 대해서 거의 서술하고 있지 않다. 마지못해 학습지도요령에 따르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19) 1981.3.31 문부성 검정, 土井正興·小倉芳彦·阪東宏·小島普治 著, 1982.3.30 《新 世界史》(三省堂) 초판에서는 “금회의 신판에서 마음을 썼던 것은 (중략) 학생 여러분의 학습의욕을 더 꺾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라고 하여 확실히 권태감에 대하여 서술하였고, “복수민족을 포함하는 ‘文化圈’을 설정하거나, 인접하는 문화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하는 설명이 행해지는 일이 있다”고 하여, 文化圈論에 비판적이었는데, 山川[출판사]의 (1) 村川堅太郎·江上波夫·林健太郎 著, 史學會編, 1952.6 《再訂 世界史》(山川出版社) (3) 村川堅太郎·江上波夫·林健太郎 著, 1960.3 《詳說 世界史》(山川出版社)에 있는 “문화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하는 문화절대주의를 거슬러 사유하고 있다.

또한 이 사이 한국·중국과의 역사교과서 문제가 일어나 제6기(1989년 고시, 1994년 4월 시행)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는 동아시아문화의 특색으로 한자와 유교를 강조하였고, 또한 근린제국조항(1982.11.24 교과용도서검정기준)의 영향으로 한국에 배려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외의 족쇄가 되어 이후의 교과서 집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23) 1993.2.28 문부성 검정, 西川正雄·矢澤康祐 외 10명 著, 1994.3.30 《世界史B》(三省堂)은 먼저 학생의 권태감을 타파하려고 했기 때문인지, 머리말에서 “제군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의 산물인 것이다. 자신은 좋아하는 생활방식을 한다. 쓸데없는 참견은 싫다고 하는 생각은 괜찮다”고 하였는데, 자신을 둘러싼 사회의 형성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성난 목소리로 말하였고, 한자를 읽는 방법을 대폭 증가시키고, 新羅에 ‘シラ’라는 음(현대 한국어음이라면 정확하게는 ‘シル’이다)을 붙였는데, 혹시 진짜로 참신함을 강조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일본은 신라에서 우선 율령제를 받아들이고 그 후에 중국의 선진적인 제도와 문화를 흡수한 뒤 율령국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처럼, 한국 학자의 ‘自尊史觀’과 흡사한 설을 거론했다는 것에는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신라에서 일본으로의 율령제 전파를 논증 없이 단정했던 것은 조사 대상 32책 중 이 1책뿐

이었다.

이처럼 근린제국조항의 영향과 애당초의 권태가 극에 달하여 2000년에 들어온 이후인 제7기에는 (25)와 같이 당과의 관계지역을 책봉관계와 조공관계 2개로 나누어, 제도·문화 전과 중심의 해석으로부터 책봉·조공관계 중심으로 당과 주변제국과의 관계인식의 학습이 이행했다. (26) 에서는 당과 동·서 돌궐, 위구르, 발해, 신라, 吐蕃, 南詔 등과의 관계는 조공을 포함한 책봉관계였다고 하였고, (27)에서는 왕년의 堀敏一·板垣雄三·今井紘·西川正雄 외 1명 저, 1983.1.20 《新詳世界史》(帝國書院)와 마찬가지로 주변 민족을 대강 나열하고, 당의 제도와 문화를 들여왔다고 일괄하여, 귀찮은 지역구분을 일거에 해소하고 있다.

(28) 2006.3.20 문부성 검증필 相良匡俊 외 7명 저, 2007.2.10 《新選世界史B》(東京書籍株式會社)에서는 “... 발해는 번영으로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라고 하여 일단 한국을 배려하였고, 새로 도관을 두어 책봉·조공·대항의 국제관계를 나누어 기술하였다. 책봉관계는 백제·신라·고구려·발해·南詔, 조공관계는 일본·眞臘·참파·수리비자야, 대항관계는 동돌궐·서돌궐·위구르·도번·압바스조 라고 하여 문화보다 국제관계를 중시하는 교과서로 교과서기술이 점점 이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후의 항목인 대항관계로는 동아시아세계로부터의 離反者가 되어버린다. 그리하여 (30) 2006.3.20 문부성 검정, 尾形容 외 7명 저, 2007.2.10 《世界史B》(東京書籍) 발행에서는 그림으로 책봉관계를 백제·고구려·신라·발해·南詔, 조공관계는 일본·眞臘·참파·수리비자야라 나타내고, 다음으로 가부장제적 관계를 응용(본문에서 말하는 ‘家人의 禮’)하여 당과의 관계를 재정의 하였다. 요컨대 새로운 親和개념을 고안하여 돌궐, 위구르, 吐蕃을 동아시아 세계에 묶어 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31) 2007.3.22 문부과학성 검증필, 川北稔·青野公彦·重松伸司·清水和裕·小杉泰·吉澤誠一郎·杉本淑彦·杉山清彦·桃木至朗 등이 저술한, 2008.1.20 《新詳世界史B》(帝國書院)에서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등장하였다. “東晋에서 시작되어, 남조·북조에서 발전하고, 수당에 이르는 문화의 흐름을 晋唐文化라고 부르는데,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적 토양이 되었다”, “한반도·일본열도 등 당의 주변 제 지역에서는 한자를 매체로 하여 嶺·都城制·불교문화를 받아들여 국가를 정비하였고, 현재까지 계속되는 한자문화권이 형성된다”라고 하였고, “한편으로 東方·南方의 조공국에 대해서는 책봉관계를 맺어 세계 제국으로서 처신했는데 당은 힘 관계와 국제정세에 따른 다양한 관계를 전개하였다” 고 하여, 晋唐文化를 토양으로 하는 한자문화권이라고 하는 문화권을

새롭게 창설하고, 책봉·조공관계는 동방·남방의 조공국으로 해결해버린 것이다.

이하에서 자료를 들어보고자 한다. ①부터 ⑧은 분석을 위한 주요항목이다.

①당 제도의 전파지역, ②당 문화의 형성, ③당 문화의 특징, ④당 문화의 전파지역, ⑤문화권 설정의 설명, ⑥애매한 지역, ⑦ 일본의 독자성, ⑧특징적 이데올로기, 기타. 이하, 항목별로 자료를 정리한다. 그렇지만 책 수가 많기 때문에, 인용문은 거의 전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다.

제1기(1946~1952)

(1) 1951년 문부성 김정필, 東北大學 명예교수 문학박사 大類伸 감수, 東京大學 조교수 吉岡力 외 편집, 1951.11 《高等世界史》(好學社)

“... 大化의 新政이 전개되었다. 이후 수·당의 제도를 본보기로 하여 울령국가의 건설에 노력하였다. 따라서 奈良시대는 소위 小唐國의 내용을 구비하여 唐風 文化를 보여주었다. ... 그러나 唐과 마찬가지로 이 문명도 농민의 희생 위에 건립되어 있었다. 大化改新으로 농민은 자유롭게 되었지만 소위 천황국가 그 자체에 예속된 존재였고, 구래의 호족은 관료귀족으로서 여러 가지 특권이 부여되어 세력을 갱신하였다”(같은 장, 제6절 고대일본과 대륙문화의 영향(고대 일본과 대륙문화의 영향), 78~79.

→①없음 ②당 문화는 남북 융합으로 서방과의 교류로 국제적 ③국제적 ④없음 ⑤동아문화권, 본문 중에는 없고 節 이름만 있다. ⑥없음 ⑦일본의 울령국가체제. 그러나 小唐國으로 唐風. ⑧마르크스주의 사관

(2) 1951년 문부성 김정필. 東大 교수 三上次男·お茶の水女子大 조교수 尾鍋輝彦 공저, 1951.6 《世界史 上(고등학교 제2,3학년용)》(中教出版)

“황량했던 동북 만주 일각 吉林省의 東京城 땅에 큰 廢城이 있었다. ... 이 폐성의 평면도는 당나라 長安의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이것은 발해의 首府인 上京龍泉府의 흔적이라고 알려졌다. 그리고 궁전의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와의 교류의 사실을 말해주듯이 ‘和同開珎’이 발견되었다. 8세기 초 동만주에서 北韓 지역에 걸친 지방을 영토로 하였던 말갈족의 발해가 생겨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이고 정비된 국가제도를 만들었다”(단원Ⅱ ‘中世의 유럽사회와 문화는 어떠했을까? 또한 그 즈음의 아시아의 사회와 문화는 어떠했을까?’, 제11장 동아시아문화권의 성립, 만주, 129쪽).

→①일본·신라·발해 ②남북 융합이고, 아시아 諸國에서 유입된 문화와 합체하여 국제색이 풍부 ③국제적이고 귀족문화 ④일본·신라 ⑤당의 정치제도·지배조직·문화의 전파지역이 동아시아문화권 ⑥티베트(吐蕃)·南詔 ⑦일본의 율령국가체제 ⑧발해의 도시계획을 당 문화의 영향으로 여기고, 일본의 和同開珎으로부터 일본과의 교류를 말함. 발해의 당 도시계획 수용 이야기는 그 후 제6기, 제7기에 다시 나타난다.

제2기(1953~1961)

(3) 1954년 문부성 김정필, 廣島大學 교수 문학박사 千代田謙, 金澤大學 교수 増井経夫 저, 《世界の歴史》(三省堂) 간행 연월 기재가 없는데, 표지에 55년 발행, 56년까지 사용 이라고 하는 메모가 있다.

→①당의 법제·관제의 전파지역으로 일본·신라·발해·南詔 ②당 문화는 동서와의 교류로 국제적. 세계 제국의 주인으로 오랑캐(蠻夷)에 군림 ③국제적 ④신라·발해·일본·南詔 ⑤문화권 없다. 그러나 漢字·漢文·법제·관제·율령국가·불교 등 공통의 문화를 지닌 동아시아 ⑥없음 ⑦3省 6部는 일본 고대 정부의 원형. 일본의 율령국가체제 ⑧고대에 공통의 문화를 가지면서도 동아시아 諸國과 일본의 발전형이 후세에 달라지는 것을 강조한다.

(4) 1954년 문부성 김정필, 京都大學 교수 原隨園 저《世界史》教育圖書, 1955)

→①당의 율령제도는 동아시아 諸國의 모범 ②당 문화는 훌륭한 제도를 만들었고, 西方과 교류 ③국제적·귀족적 ④일본·신라·고구려·발해·티베트·雲南·인도차이나 ⑤문화권 없음. 그러나 당 문화는 一大 문화권을 만들어, 중국 문화가 동양 문화의 큰 요소가 되는 기틀 ⑥없음 ⑦없음 ⑧독립된 章으로 ‘동아시아문화권’은 없지만, 다음 제5장에 ‘이슬람문화권’이 있다. 이 책의 문화권은 이 뿐.

(5) 1955년 문부성 김정필, 一橋大學 교수 上原專祿, 東京大學 교수 江口朴郎, 都立大學 조교수 太田秀道, 東京大學 조교수 西嶋定生, 中國研究所 이사 野原四郎 저, 1955.5.25 《高等學校社會科 高校世界史》(實教出版)

“신라·발해·일본 3국은 모두 사절과 유학생을 당에 파견하였고, 당도 또한 이들 나라의 사람들을 異國民으로 차별하지 않았다. 이는 당의 제도와 이들 세 나라의 제도가 놀랄 만큼 공통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 세 나라의 도시 만드는 방법이나 토지제도·세제·관제 등은 당의 제도와 매우 유사하다. 이것은 신라와 일본이 국가권력을 확립하려고 하는 경우 당을 모범으로 하는 율령국가의 모습을 취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불교를 비롯한 諸文化도 이

들 나라에 전파되어 번영하였다. 이리하여 동아시아에서는 당을 중심으로 하는 율령국가군이 성립하였고 당은 그 宗主로 자임했던 것이다. 이처럼 당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는 정치적, 문화적으로 하나의 문명권을 구성하기에 이르렀는데, 중국문명의 발달이 주변 제국가를 포함하여 동아시아문명권을 완성시킨 것이다”(제1. 중국문명의 형성과 그를 중심으로 하는 문명권의 성립, 6. 통일제국의 再現과 동아시아 문명권의 완성, 율령국가군의 성립, 53쪽).

→①도시 만드는 방법·토지제도·세제·관제·율령국가가 공통적인 일본·신라·발해는 율령국가군 ②국가제도. 서방과 교류 ③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와, 세계적인 성격의 두 가지가 당 문화의 특색 ④일본·신라·발해 ⑤불교를 비롯한 제문화가 전해져, 당을 중심으로 하는 율령국가군(중국·일본·신라·발해)이 성립하였다. ⑥없음 ⑦없음 ⑧일본·신라·발해의 동아시아 율령국가군의 宗主가 당이라고 독자적으로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골품제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제3기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1960년 고시, 1960.10월 시행, 1963년도 교과서 사용)

(6) 京都大學 교수 貝塚茂樹, 一橋大學 교수 增田四郎, 東京教育大學 교수 小竹文夫, 朝日新聞社 논설 주간 笠信太郎 저, 《世界史B》(自由書房) 간행 연월의 기재는 없지만, 표지에 ‘63년 발행, 64년까지 사용’ 이라는 메모가 있다.

→①일본·신라·발해 ②당 문화는 西方과의 교류로 국제적 ③국제적·異國정서 ④일본·신라·발해 ⑤없음 ⑥돌궐, 위구르 ⑦일본의 율령국가체제 ⑧동아시아문화권의 발전이라고는 하지 않고, 주변 諸國家의 동향을 기술

(7) 1963 문부성 검정, 和田清·山中謙二 저, 《高等學校 世界史B》, 日本書院. 표지에 ‘64년 발행, 66년까지’ 라는 메모가 있다.

→①일본·발해 ②재래의 중국문화를 集成하고, 광대한 영토를 통해 세계 각지의 문화를 받아들였다. ③국제색이 풍부한 귀족문화 ④일본·신라·발해·돌궐·위구르·吐蕃·南詔 ⑤당의 번영과 주변 諸國의 친교에 의해 당 문화를 내용으로 하는 동아시아문화권이 형성되었다. ⑥없음 ⑦일본의 율령국가체제 ⑧발해의 건국자 대조영을 언급하였다. “이들 諸國은 그 문화수용을 계기로 하여 민족적 자각을 강화하여 각자 독자의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는 서술은 山川의(1),(2),(3)과 동일. “돌궐과 위구르, 특히 위구르는 당 문화의 수입에 매우 열심”이라고 한 것은 독자적인 견해

(8) 1963 문부성 검정, 鈴木成高, 兼岩正夫, 松田壽男, 鈴木俊 외 2명 저, 1963 《高等

世界史B》(帝國書院)

“그리하여 당은 넓어진 屬地를 단속하기 위하여 6都護府를 두고, 속지의 지배를 각 민족의 자치에 맡기는 기미정책을 취하였다”(제2장 중국사회의 전개와 이슬람세계, 제1절 중국의 귀족적 문화의 발전, 당의 성쇠, 68~69).

→①없음 ②당 문화는 西方과의 교류, 수·당의 대통일 ③국제적·귀족적, 外形美와 異國정서가 넘치고 있다. ④일본·신라·발해·吐蕃·南詔 ⑤없음 ⑥없음 ⑦없음 ⑧당의 문화를 중국의 귀족문화 발전으로 설명한다. 동아시아문화권은 없지만, 다음 제2절에는 이슬람문화권이 있다. 제도면에서 당 제도의 전파는 말하지 않고 屬地의 지배지에 대한 기미정책을 처음으로 말하였다.

(9) 山崎宏·秀村欣二 외 2명 저, 1963.6.10 《世界史B》(清水書院)

→①일본·신라·발해 ②귀족문화의 전성기, 서역 문화의 유입 ③국제적·귀족적 ④일본·신라·발해·티베트(吐蕃) ⑤없음 ⑥돌궐·위구르·南詔 ⑦없음 ⑧동아시아문화권의 설정 없이 주변국의 동향을 말하고 있다.

(10) 1963.4.20 문부성 검정, 榎一雄·堀米庸三 저, 1964.1.20 《標準高等世界史》(講談社)

→①일본·신라·발해·안남(베트남) ②남북 융합으로 외래문화를 흡수 ③국제적인 성격으로 異國정서 ④일본·신라·발해·일본·안남(베트남) ⑤없음 ⑥없음 ⑦일본의 율령정치 및 班田收受. 平城京·平安京은 당의 長安을 모방 ⑧유교 전파를 강조하여 종래 일본·신라·발해에 베트남을 추가한 것이 독자적

(11) 1963 문부성 검정, 中屋健一·別枝達夫·松俊夫 저, 《世界史》(三省堂)

→①일본·발해·吐蕃 ②서방과의 교류로 국제적 ③국제문화 ④일본·신라·南詔 ⑤章 제목에 동아시아문화권 있음. 그러나 본문 중의 설명은 없다. ⑥돌궐·위구르 ⑦일본의 율령국가체제 ⑧문화권 중심의 교과서로 제6장은 이슬람문화권

(12) 1964.4.20 문부성 검정, 高山一十·今堀誠二 외 4명 저, 1966.2.15 《世界史B》(修文館)

→①일본·조선·발해 ②西方 및 南方으로부터 문화 요소를 수입, 古典文化를 더욱 충실히 함 ③국제색 ④일본·신라·발해 ⑤당 문화를 중심으로 하여 동아시아문화권을 형성 ⑥돌궐·吐蕃·南詔 ⑦일본의 율령정치 ⑧동아시아문화권을 말하지만, ‘중국주변 제국’의 항목에 포인트를 두고 서술하고 있다. 당은 “율·령·법을 집대성하였다. 이 율령정

치는 일본과 한국에서도 받아들여 실시되었다.”, “奈良시대의 율령제도는 중국의 율령제도와 거의 비슷하다.” 즉 일본의 율령제도는 중국과 비슷하지만 다른 한국의 여러 나라에서도 율령정치가 실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게다가 당의 문화가 서구에 파급되었다고 했는데 내용은 씩어있지 않다.

(13) 1963.4.22 문부성 검정, 1966.4.11 改訂검정, 東京教育大學 교수 문학박사 酒井忠夫·東京大學 교수 高橋幸八郎 외 3명 저, 1967.3.25 《改訂 世界史B》(秀英出版) 改訂 初版

→①일본·신라·발해 ②귀족문화의 전성기, 서역문화의 유입 ③국제적·귀족적 ④일본·신라·백제·고구려·발해·林邑·吐蕃 ⑤당 문화의 전파지역으로 중국문화권 ⑥占城(참파)·眞臘(크메르인의 국가)·수리비자야·돌궐·위구르 ⑦일본의 율령국가체제 ⑧중국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이 독자적이다.

(14) 1963.4.20 문부성 검정, 1966.4.11改訂 검정, 三上次男·大野眞弓·秀村欣二 외3명 저, 1967.2.10 《新版 世界史B》(中教出版)

→①일본·신라 ②중국의 전통문화가 아시아제국에 유입된 문화와 융합되어, 국제색이 풍부한 唐문화가 탄생 ③국제색이 풍부한 귀족문화 ④일본·신라·吐蕃 ⑤동아시아문화권은 장 제목은 있으나 본문 중에는 없다. ⑥占城(참파)·眞臘(크메르인 국가)·수리비자야·돌궐·위구르·南詔 ⑦일본의 율령국가체제 ⑧신라의 골품제를 말하고 있다.

(15) 立教大學 교수 井上幸治, 慶応大學 교수 문학박사 前嶋信次 외 3명 저, 1964.1.25 《世界史B 改訂版》(實教出版) 제1판, 1966.5.25 개정

→①일본·신라 ②隋唐시에 중앙집권이 수립되어, 주변 제민족을 압박하고, 동아시아에 군림하는 大帝國이 되었다는 것 ③귀족적이고 異國취미 ④일본·신라·발해 ⑤없음 ⑥없음 ⑦없음 ⑧없음

제4기(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1970년 고시, 1973.4 시행, 1973년도 교과서 사용)

(16) 1972.4.10 문부성 검정, 中屋健一·別枝達夫·松俊夫 저, 1973.3.15 《世界史》(三省堂) 초판, 1975.3.30 3판.

→①일본·신라·발해 ③사산조페르시아, 이슬람제국과 접촉하여 서방의 문화가 전파되었고, 귀족·관료 중심의 국제문화가 발생하였다. ③귀족·관료 중심의 국제문화 ④일본·신라·吐蕃·南詔 ⑤없음 ⑥베트남·위구르 ⑦일본의 율령국가체제 ⑧기술이 정형화 되어갔다.

(17) 1972.4.10 문부성 검정, 高橋秀・堀敏一・松井透・今井宏・富永幸生 著, 175.1.20 《高等世界史 最新版》(帝國書院)

“당은 이들 제민족을 정복하거나 조공을 하게 하여 동아시아에서 공전의 대제국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 당제국의 지배를 통하여 당의 제도·문물이 주위의 제 국가에 미쳐 동아시아는 공통의 문화를 가진 통일적인 세계로 통합·정리되었다. 또한 당의 영토가 서방에 뻗친 결과 서방 세계와의 교류도 왕성하게 되어, 이 시대의 동아시아문화를 국제색이 풍부한 것으로 만들었다”(제I부 개별적 세계의 형성과 전개, 제1장 개별적 세계의 형성, 4 隋唐 제국과 동아시아 세계, 당의 국제성, 68쪽)

→①일본·신라 ②대제국의 지배와 서방세계와의 교류 ③국제색 ④일본 ⑤없음 ⑥돌궐·吐蕃·南詔·베트남·발해, 참파·크메르·수리비자야 등의 동남아시아 조공국 ⑦일본의 율령국가체제 ⑧동아시아문화권을 말하지 않지만 동아시아의 문화적 통일성을 말하고, 각국의 당 문화수입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았다. 기술이 정형화 되어있다.

(18) 1972.4.10 문부성 검정, 井上智勇・田村實造 著, 1973.2.15 《世界史》(清水書院) 초판, 1974.2.15 2판.

→①일본·발해 ②남북조 통일, 외국문화 수용 ③국제적 ④일본·발해·티베트 ⑤당의 제도·문화를 기조로 하는 동아시아문화권 있다. ⑥신라·백제·고구려·돌궐·위구르·南詔·眞臘·샤이렌드라·수리비자야 ⑨없음 ⑩단어 나열형 기술.

제5기(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1978년 고시, 1982.4 시행, 1982년도 교과서 사용)

(19) 1981.3.31 문부성 검정, 土井正興・小倉芳彦・阪東宏・小島晋治 著, 1982.3.30 《新世界史》(三省堂) 초판.

“이번 신판에서 신경을 쓴 것은 기성사실을 추인하거나, 과학문명의 발달을 구가할 뿐인 ‘세계사’로 인해, 학생 계급의 학습의욕을 더욱 떨어뜨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 (1)근대 서구 자본주의의 세계 제패가 문자 그대로 ‘세계사’를 성립시켰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아시아·아프리카 등의 제민족의 식민지화, 종속화라고 하는 희생을 수반하는 것이었는바, 소위 강자 중심의 ‘쓸쓸한’ 지배체제의 성립이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 (3)종교와 문자를 비롯하여 일용의 도구류의 공통성을 지표로 하여 복수민족을 포함하는 ‘문화권’을 설정하기도 하고, 인접한 문화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하는 설명이 행해지는 곳도 있다. 그러나 농경이 목축보다 우월한 생활양태라고는 할 수 없고 전산기계 문화가 無文字 문화보다 고급이라고도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민족에게는 각각의 자연과 역사의 환경 중에서 배양된 고유한 생활양식과 습속이 있다. 이들 개성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다른 민족 사이의 깊은 이해도 생

길 수 있는 것이다. 근대 일본이 근린의 국가와 민족에게 행한 수많은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도 이러한 것은 마음에 받아들 필요가 있다”(들어가며).

→①일본·발해 ②없음 ③없음 ④일본·발해 ⑤없음 ⑥신라·돌궐·吐蕃·南詔 ⑦일본의 율령국가체제 ⑧머리말에서 정형화된 기술에 대한 학생의 권태를 말하고 있다. 山川의 (1), (3)에 있는 “문화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고 하는 표어를 비판하였다. 처음으로 문화권론 비판을 하여 문화권 설정을 문화의 高低를 고정화하는 것이라고 문화상대주의의 입장에서 비난하였다.

(20) 1982.3.31 문부성 검정, 池田溫 외 12명 저, 1983.2.15 《高等學校 世界史》(清水書院) 초판.

→①일본·신라 ②중앙아시아·인도·이란 등의 문화 유입 ③국제적 ④일본·신라·발해·베트남 ⑤당의 문화는 주변의 농경 제민족의 문화에 강한 영향을 주어, 당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문화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세계가 성립 ⑥吐蕃·南詔 ⑦일본의 율령국가체제 ⑧신라는 당에서 중앙관제와 군현제등을 받아들였지만, 사회는 가문 등급의 골품제였다고 기술하였다. 장 제목으로 동아시아문화권은 없지만 이슬람문화권은 있다. “동아시아문화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세계가 성립되었다”고 하여 동아시아문화권에 대한 회의를 풍기고 있다. 교과서의 집단 창작이 자명하게 되었다.

(21) 1982.3.31 문부성 검정, 堀敏一·板垣雄三·今井宏·西川正雄 외1명 저, 1983.1.20 《新詳世界史》(帝國書院)

→①일본·신라·발해·돌궐·위구르·吐蕃·南詔 ②당의 대제국 형성, 서방세계와의 교류 ③당초에는 귀족적·국제적, 중엽부터 당 제국의 변화와 신흥계급의 등장에 따라 서민적·민족적인 특징이 생겼다. ④일본·신라·발해·돌궐·위구르·吐蕃·南詔 ⑤없음 당의 제도·문물을 공통문화로 하는 동아시아 세계는 있다고 한다. ⑥없음 ⑦일본의 집권국가(율령국가) ⑧주변 제민족 모두 당의 제도·문물을 받아들였다고 하여, 제도·문화의 전과 범위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한다. 예로 든 당 文人 일람의 몇몇 사람들은 귀족적이 아니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당 중엽 경부터 서민적·민족적으로 되었다고 하여 일거에 해결한다.

제6기(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1989년 고시, 1994.4 시행, 1994년도 교과서 사용)

(22) 1989.3.31 문부성 검정, 1992.3.31 개정 검정, 荒井信一·五井直弘·浜林正夫·中村

平治 외 16명 저, 1993.3.30 《詳解世界史》(三省堂) 초판.

“이처럼 동아시아제국은 4세기 이후 상호 대항과 협력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여 동아시아 세계를 형성하여 갔다. 중국에 사절을 파견하여 중국 황제로부터 官爵을 수여받았고, 중국을 종주국으로 하여 藩屬하는 것을 책봉이라고 하는데, 이 책봉체제를 근대 이전의 동아시아세계의 중요한 질서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다”(제 I 편 역사적 세계의 성립, 제2장 동아시아세계·내륙아시아 세계의 형성, 4. 중국의 분열과 동아시아, 동아시아세계의 형성, p.33). “일본에서는 大和정권이 대륙 제 국가와의 제휴를 강화해가면서 통일을 추진하였다. 遣隋使와 遣唐使를 활발히 보내어 선진적 문물과 제도의 도입에 노력하여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율령국가를 급속하게 건설해 갔다”(같은 편, 같은 장, 同5, 일본·조선의 고대통일국가, p.38).

→①일본·발해 ②없음 ③세련된 귀족문화와 국제성 풍부 ④일본·신라·발해. 신라의 골품제를 언급하였다. ⑤없음 책봉체제는 근대 이전의 동아시아 세계의 중요한 질서 ⑥고구려·백제(기미정책의 대상국), 위구르·吐蕃·南詔(당에 침입한 국가) ⑦일본의 율령국가 ⑧처음으로 책봉체제를 주에서 언급하였다. 또한 당의 고대문물을 ‘선진문물’이라고 하여, 우리나라에는 없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종래 우리나라에서 先進이라고 하면 서구 근대의 것을 가리켰다.

(23) (1993.2.28 문부성 검정, 西川正雄·矢澤康祐 외 10명 저, 1994.3.30 《世界史B》(三省堂))

“... 그대들이 살고 있는 사회는 지금까지 수백 세대에 걸쳐 사람들이 살아왔던 것의 축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대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의 산물인 것이다. 자신은 좋아하는 생활방식을 따르고 쓸데없는 참견은 싫다고 해도 좋다. 그럴수록 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알아야 한다”(머리말). “중국 황제에게 책봉된 국왕은 공물을 바치는 사절을 황제에 보내는 것(朝貢)이 의무였지만, 그 군신관계는 황제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뿐으로 조공국의 실질적 독립은 인정되었다(책봉체제). ... 고대의 중국에서는 儒學을 토대로 하여 우수한 문화·도덕을 가진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주변의 문화·도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夷狄)은 제왕의 덕에 동화되어 따르게 된다고 하는 생각(中華思想)이 강하여, 중국과 주변국의 군신관계도 중화와 夷狄의 관계 속에 자리매김되었다. 이리하여 책봉·조공관계에 기초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세계가 형성되어 한자문화와 유교, 후에는 불교와 율령제 등이 주변국에 전파되었다. 그런 와중에 일본의 고대 천황제국가와 같이 중국의 책봉체제와 비슷한 자신의 책봉체제(小中華)를 구축하려고 했던 나라도 생겼다”(제 I 부 諸地域 세계의 형성, 제3장 동아시아·내륙아시아세계, 3 내륙아시아·동아시아의 변동, 동아시아세계와 책봉체제, p.72). “거대한 당의 성립은 주변지역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 드디어 신라는 당과의 관계를 수복하여 당에게 조공하여 교류를 심화하고, 또한 율령제를 정비하고, 국가불교를 발전시켰다. 이 율령제와 불교문화는 일본에도 전해졌다. 일본은 遣隋使와 遣唐使를 보내 중국의 선진적인 제도와 문화

의 흡수에 노력하였다. … 그 후 일본은 신라와 교류를 추진하고 당에 대항하기 위해 급거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율령제와 국가 불교를 축으로 하는 통일국가의 준비를 이루었다”(같은 部, 같은 장, 4. 수·당제국과 동아시아, 동아시아·내륙아시아의 변동, 74~75쪽).

→①신라와 일본의 율령제 ②한자·유교·불교의 문화 ③귀족에서 해방된, 신흥지주 등의 새로운 지식인의 문화 ④일본·신라·발해 ⑤없음 중화사상에 의한 책봉·조공관계의 동아시아 세계가 등장하여 한자·유교·불교·율령이 전해졌다고 한다. ⑥돌궐·위구르·吐蕃. ⑦일본은 책봉체제를 모방한 小中華 ⑩머리말에 학생을 질타하는 글이 있다. 일본은 신라로부터 우선 율령제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중국의 선진적인 제도와 문화를 흡수하고, 그 후에 율령국가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다. 新羅에 ‘シラ’라고 읽는 법이 적혀 있다. 또한 漢字의 읽는 방법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소중화’는 한국의 조선 시대부터의 전문용어인데, 오용되어 일본에 대하여 사용되고 있다.

(24) 1994.2.15 문부성 검정, 池田溫 외 13명 저, 1995.2.15 《詳解 世界史》(清水書院)

→①발해(정치제도와 도시계획) ②華北·華南의 문화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성립 ③한자·유교·불교·율령 ④한국 삼국·(통일)신라·일본·발해 ⑤없음 그러나 한자, 유교, 율령 등의 독자적인 문화가 동아시아 지역에 전파되어 공통의 문화권이 성립 ⑥돌궐(정략결혼·기미정책)·위구르·吐蕃(정략결혼·외교관계), 베트남(명목상 식민지·기미정책) ⑦일본은 책봉되지 않았다. ⑧일본을 ‘倭國’이라고 한다. 新羅에 ‘シラ’라는 읽는 법이 적혀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 율령이 전파되었다고 했지만, 한국의 삼국은 여러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한자, 불교, 유교 등 중국의 선진문화를 수용하였다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여기에서는 율령을 제외하였다. 이것들이 한국에서의 이민으로 일본에 전해졌다고 표현한다. 중화사상에 의한 책봉체제로 동아시아세계의 통일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 일본은 수당 대에도 책봉관계는 아니었고, 북송 이후는 동아시아의 책봉체제도 조공무역을 중시하는 체제로 변질되었다고 설명한다.

제7기(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1999년 고시, 2003.4 시행, 2003년도 교과서 사용).

(25) 2003.4.2 문부성 검정필, 鶴見尙弘·漣塚忠躬 외 9명 저, 2004.1.25 《高校世界史B》(實教出版)

→①신라(율령제를 실시했지만 골품제가 있음), 南詔(율령제), 일본(율령제) ②없음 ③국제색 풍부 ④신라(문화·불교)·발해(문물·불교)·南詔(한자·유교·율령·불교) ⑤없음 책봉·조공체제에 의한 동아시아 세계형성 ⑥吐蕃 ⑦없음 ⑧책봉관계는 신라·발해·南詔이

고, 조공관계는 일본·참파·眞臘·수리비자야라고 하여, 당과의 관계 지역을 2개로 나누었다. 제도·문화의 진과 중심적인 해석에서 책봉·조공관계 중심으로 당과 주변 제국의 관계 인식이 이행하고 있다.

(26) 2006.3.20 문부과학성 김정필. 西川正雄·中村平治·矢澤康祐 외 15명 저, 2007.3.30 《世界史B 改訂版》(三省堂)

“그 후 신라는 당과의 관계를 수복하여 책봉관계를 맺고 율령과 군현제를 받아들여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수도 경주의 불국사를 비롯하여 각지에 불교 사원을 건립하고, 국가수호를 위한 호국불교를 발전시켰다. 일본 열도에서는 야마토 왕권이 隋와 唐에 遣隋使와 遣唐使를 파견하여 중국의 제도 및 문화의 흡수에 노력하고, … 율령을 정비하여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국가건설이 진전되었다. … 8세기가 되자 일본에서는 한반도에서 전해진 불교가 국가의 보호를 받아 발전하여 기술적으로 수준 높은 天平文化가 꽃피었다. … 이와 같이 동아시아제국은 7세기 이후 격한 대립과 협력의 관계 속에서 정치적·문화적으로 일체화된 동아시아세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제 I 부 諸 지역 세계의 형성, 제3장 동아시아세계의 형성과 내륙아시아, ④수·당과 동아시아세계의 성립, 67~68쪽).

→①신라(율령·군현제)·발해(제도)·일본(율령) ②없음 ③귀족문화·국제성 ④일본(당 문물·한반도 경유의 불교)·신라(당 불교)·발해(당 문물)·吐蕃(당 문화) ⑤없음 그러나 대립과 협력의 관계 속에서 정치적, 문화적으로 일체화된 동아시아세계를 형성 ⑥없음 ⑦없음 ⑧동·서돌궐, 위구르, 발해, 신라, 吐蕃, 南詔 등은 조공을 포함한 책봉체제

(27)2006.3.20 문부과학성 김정필. 鶴見尚弘·遲塚忠躬 외 11명 저, 2007.1.25 《世界史 B 新訂版》(實教出版)

→①동돌궐·위구르·발해·신라·吐蕃·南詔 ②없음 ③국제성 풍부 ④신라·발해·동돌궐·위구르·吐蕃·南詔 ⑤없음 복속한 제 민족에는 기미정책으로 주변 제민족 국가에게는 臣從과 조공으로 당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세계를 형성 ⑥참파·수리비자야(조공) ⑦없음 ⑧堀敏一·板垣雄三·今井宏·西川正雄 외 1명 저, 1983.1.20 《新詳世界史》(帝國書院)와 마찬가지로 주변 제 민족 모두를 당의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하여 일거에 해결하였다. 그 후 신라(불교와 율령이지만 골품제), 발해(당의 문물), 일본(율령)이라고 보충하였다.

(28) 2006.3.20 문부과학성 김정필, 相良匡俊 외 7명 저, 2007.2.10 《新選世界史B》(東京書籍株式會社)

“... 발해는 그 번영기부터 ‘해동성국’ 이라고 불렸다. 발해는 신라와 대립하여 당과 일본에 접근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일본에 때때로 사절을 보냈다. 都護府가 설치된 베트남 북부에서는 종종 베트남 사람의 독립운동이 펼쳐졌지만 당의 지배가 계속되었다(제3장 동아시아·내륙아시아 세계의 형성, 4. 수당 제국과 동아시아 제민족의 활동,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 69~70).

→①없음 ②화북과 화남의 경제적 발전, 서방 이슬람제국과의 무역 ③귀족적이고 국제적 ④일본·신라·발해 ⑤없음. 중화사상에 의한 조공무역과 중화질서에 의한 책봉체제로 중화의 문명이 동아시아 일대에 전파되어, 동아시아세계 성립 ⑥베트남 ⑦일본의 율령국가체제 ⑧한국의 교과서, 채희승·노명식 저, 1970.1.10 《인문계고등학교 세계사》(法文社) 및 오인석·김규호 저, 1984.3.1 《고등학교세계사》(문교부 검정, 1983.7.29)(東亞出版社)에 보이는, ‘발해는 해동성국’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西川正雄·矢澤康祐 외 10명 저, 1994.3.30 《世界史B》(三省堂)의 중화사상으로 조공·책봉을 설명하고 동아시아의 통일을 서술하는 방법을 답습하였다. 도관이 있는데 책봉·조공·대항으로 국제관계를 나누고 있다. 책봉관계는 백제·신라·고구려·발해·南詔, 조공관계는 일본·眞臘·참파·수리비자야, 대항관계는 동돌궐·서돌궐·위구르·吐蕃·압바스朝이다. 문화보다 국제관계를 중시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29) 2006.3.20 문부과학성 검정, 向山宏 외 10명 저, 2007.2.10 《改訂版 世界史B, 人, 暮らしがあふれる歴史(사람, 삶이 넘치는 역사)》(第一學習社).

→①당의 근린제국에 율령제 ②남북조 문화 계승, 서방문화 수용 ③귀족문화, 국제색 풍부 ④일본·신라·발해 ⑤없음. 책봉·조공관계의 근린제국에 율령제·유학·불교·한자가 퍼져, 동아시아세계 형성 ⑥없음 ⑦없음 ⑧책봉관계는 신라(골품제 언급)와 발해이고, 조공관계는 일본이라고 한다. 유교라고 하지 않고 유학이라고 하였다.

(30) 2006.3.20 문부과학성 검정, 尾形勇 외 7명 저, 2007.2.10 《世界史B》(東京書籍) 발행.

“... 그러나 책봉은 상하관계가 엄격한 군신관계(군신의 예)가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리의 父子·兄弟의 관계를 약속하는 등, 가부장제적인 관계(家人의 禮)가 적용되었다. 이러한 현실적이고, 융통성이 풍부한 방식은 돌궐, 위구르, 吐蕃 등의 강국에 대해 취해졌다”(같은 장, 同3, 책봉체제와 세계제국, 88~89쪽.)

→①없음(일본의 율령제) ②화북·강남문화 융합, 동서교역으로 국제적 ③국제색 풍부. 유교, 불교, 율령, 한자, 도시계획 ④일본·신라·발해·南詔 ⑤동아시아문명권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책봉과 조공을 통해 중화문명을 받아들이면 동아시아문명권이 된다. ⑥없음 ⑦일본의 율령제 ⑧도판이 있는데, 책봉관계는 백제·고구려·신라(골품제 언급)·발해·南詔이고, 조공관계는 일본·眞臘·참파·수리비자야이다. 가부장제적 관계를 응용하여(본문에서 말하는 ‘家人의 禮’) 돌궐·위구르·吐蕃에게 사용되었다. 가부장제적인 관계(‘家人의 禮’)라고 하는 개념을 고안하여 돌궐·위구르·吐蕃을 동아시아에 묶어두었다.

(31) 2007.3.22 문부과학성 김정필, 川北稔·青野公彦·重松伸司·清水和裕·小杉泰·吉澤誠一郎·杉本淑彦·杉山清彦·桃木至朗 著, 2008.1.20 《新詳世界史B》(帝國書院).

“...李白과 杜甫, 白居易(백낙천) 등의 唐詩는 중국에만 머물지 않고, 일본을 비롯한 한자문화권 공통의 교양으로서 널리 친숙해졌다. ... 東晉에서 시작하여 南朝·北朝에서 발전하고 隋唐에 이르는 문화의 흐름을 晉·唐 문화라고 하는데,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적 토양이 되었다”(6장 동아시아세계의 변동과 재편, 1절 유라시아의 변동과 동아시아세계, 남북문화의 융합, p.57). “한반도·일본 열도 등 당의 주변 제 지역에서는 한자를 매개로 하여 율령·都城制·불교문화를 받아들여 국가가 정비되었고, 현재에도 지속되는 한자문화권이 형성되었다”(작은 표제 하에 작은 글자로 설명). “일본을 포함한 이들 당의 대부분의 주변 諸國은, 수당제국에서 완성된 율령·都城制·유교·중국 불교라고 하는 통치제도·사상체계를 한자를 매개로 하여 받아들였다. 이리하여 한자문화권이 거의 율곽을 드러냈다. ... 한편으로 동방·남방의 조공국에 대해서는 책봉관계를 맺어 세계제국으로서 군림하여 당은 힘 관계와 국제정세에 따라 다양한 관계를 전개하였다”(같은 장, 같은 절, 동아시아 제국가의 형성, 58쪽).

→①한반도·일본열도 등의 당의 주변 제 지역에 율령·都城制 ②남북문화 융합, 서방 문화 유입 ③전반은 외래색이 농후한 귀족 취미적, 후반은 복고적이고 강력함을 중시하는 문화 ④일본(문화)·신라(불교, 골품제 언급)·발해·南詔·吐蕃. 이들을 포함하여 유교·중국불교의 전파를 주장 ⑤한자문화권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당의 주변제국은 율령·도성제·유교·중국불교라고 하는 통치제도·사상체계를 한자를 매개로 하여 받아들여, 한자문화권을 형성 ⑥없음 ⑦일본의 율령국가체제 ⑧晉唐문화를 토양으로 하는 한자문화권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의 등장. 책봉·조공관계는 동방·남방의 조공국이라고 서술되었다.

(32) 2007.3.22 문부과학성 김정. 鶴間和幸 외 12명 著, 2008.2.15 《高等學校世界史B 改訂版》(清水書院) 초판.

→①없음 ②없음 ③없음 ④한국 三國과 일본 ⑤없음. 한자·불교·유교 등을 기조로 하는 동아시아세계의 독특한 문화권이 출현 ⑥없음 ⑦倭國은 책봉되지 않았다. ⑧주변 제 민족에 기미정책을 취하고, 동돌궐·발해는 책봉관계, 吐蕃은 정략결혼으로 외교관계.

맺음말

이상에서 근대 일본 동아시아 공통문화론의 궤적을 살펴보았다. 이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戰前의 사상가들은 動態로서의 아시아주의의 정치행동이나 언동을 보여주었을 뿐 동아시아와 일본의 공통성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인 경우가 거의 없었다. 국가주의자 아시아주의자나 서양형 지식인 중에 동아시아와 일본의 공통문화를 언급하는 사람이 극소수 있었지만, 그들은 조선의 경우 ‘日韓同祖論’, 중국의 경우 ‘宋學’, ‘水戶學’, ‘禮儀’ 등 당시 통용되던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였다. 그들은 조선의 체제교학이 주자학이었다는 사실도, 또 의례가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유교 의례의 作法이나 관습 등 의례행사에 관계된 어휘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戰前의 국가주의자나 민족주의 우파가 태평양전쟁의 좌절로 인해 동아시아 지향성으로부터 크게 후퇴한 것과 반비례하여, 아시아주의자는 전후에 미국에 대한 종속에서 이탈하려는 의지를 가진 민족주의와 반미사상을 가진 학자를 중심으로 한 좌파로 재등장하였다. 반미를 위하여 그들이 동아시아 연대의 경향성을 강하게 띤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전후 교육계에서 활약했던 아시아주의자는 ‘동아시아문화권’이나 ‘동아시아세계’ 등의 개념 유지를 위하여 세계사 교과서라는 무대에서 반세기에 걸쳐 공통의 문화내용이나 친화관계에 대한 탐구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안쓰러운 것이 아니었을까? 공통문화의 내용은 당 문화의 ‘귀족취미와 이국정서’, ‘국제성’, ‘세계성’ 등 추상적인 문화 내용에 고정되었다. 전파된 문화를 개별 항목별로 보자. 불교는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 들어가는 데 그쳤고, 유교는 중국 민중의 으뜸 종교가 유교가 아니라 도교라는 사실과 어긋나버렸다. 조선의 유교가 주자학 일변도였던 사실과도 어긋나 있다. 일본은 생활화한 유교와는 인연이 없는 나라이다. 유학이라고 하는 데서 드러나듯이 지식인의 학문에 불과하며 喪禮는 불교가 담당하고 있다. 굳이 이 지역을 한자문화권이라 정의한다면, 유럽을 ‘알파베트 문화권’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논리의 유치함이 금방 드러난다.

제도의 전파를 채용하여 율령제를 동아시아문화권의 공통 항목으로 보고자 하여도 당이나 일본과 같은 ‘율령’을 통일신라 외에 한반도 여러 나라가 편찬·시행한 적이 없고, 당과 같은 체계적 법전을 편찬·시행한 것은 당시에는 일본밖에 없었다는 것이 실증되어 있다.

일본을 동아시아로 묶어주는 문화적 공통성은 그 항목 모두 불비하며, 동아시아 지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명료한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과서 집필자 중 아시아주의자들은 아시아 연대의 희망도 드러내기 어려워 점차 학문적인 금기를 넘어버리고 말았다. 때문에 그러한 시도는 이미 안쓰러운 운명을 맞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당 문화를 동아시아의 공통 기반으로 삼고, 그 내용을 추상적인 국제성으로 보았던 사람들은 당 문화의 전파지역을 무책임하게 자의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시키기도 하였다. 일본·신라·발해·백제·고구려·토번·南詔·돌궐·위구르·베트남·林邑·眞臘·참파·수리비자야 중에서 어디를 확정 지역으로 하여 공통문화 항목을 서술할 것인가, 어디를 애매한 지역으로 하여 나열하고 침묵할 것인가 등은 완전히 집필자의 자의에 맡겨져 있다.

문부성이 ‘동아시아문화권’을 학습지도요령의 학습사항으로 규정했을 때에는 많은 세계사 교과서 집필자와 학습자들은 이미 이처럼 강요된 ‘無造作’에 지쳐있었다. 그래서 문화론에 대신하여 등장한 것이 동아시아 국제관계론이었다. 책봉관계의 국가, 조공관계의 국가,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까지 수중에 품어왔던 眞臘·참파·수리비자야를 빼지 않고 동아시아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포괄하는 것이 가능할 터였다. 그러나 당과 대항관계에 있었던 돌궐, 위구르, 토번은 어찌 할 것인가? 새로운 개념 발명자가 나타나 당과 가부장제적 관계였다고 다시 정의하였다.

이처럼 戰前, 戰後 할 것 없이 우리나라의 아시아주의자들은 일본과 동아시아를 포괄하는 연대 개념을 창조하려고 공통성을 탐색하는 데 열심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안쓰러운 시도는 그때마다 ‘권태감’과의 싸움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없는 것을 자의적으로 만들어 낸 듯한 논리적 모순에 빠져있었던 사실은 현장의 교육자나 학생에게 쉽게 발견되었고, 복잡한 언사를 구사하기 위하여 교과서 지면은 단어의 나열로 넘쳐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교육현장이 학습내용의 팽창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고통을 당한 것은 아닐까?

이제는 학습자도 교육자도 모두 이러한 권태감의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때가 온 것은 아닐까? 동아시아는 지리상의 개념이지만, 공통의 문화 개념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다종다양한 모자이크 같은 국가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기술해도 반드시 과장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보편성이나 통일성을 지향하는 근대는 종말을 고하고 지금은 포스트모던 시대가 되었다. 잃어버린 보편성과 통일성에 대한 향수를 버리고 이제는 점차 아시아주의의 과거 궤적을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비평문]

정재정

최근 한국의 역사학계 일각에서는 ‘동아시아’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더구나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전반을 관장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고등학교 2~3학년의 선택 과목에 ‘동아시아사’를 개설했기 때문에 ‘동아시아’는 단순한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의 교육적 과제로 떠올랐다.

그런데 ‘동아시아’를 담론으로 내거는 사람들은 대개 ‘동아시아’를 하나의 지역 단위로 설정하고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어떤 공통성을 부여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때마침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수상이 ‘동아시아 공동체’의 실현을 포부로 내세웠기 때문에 ‘동아시아론’은 앞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의 학계와 정계에서도 계속 논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山内昌之와 古田博司가 쓴 <근대 일본 동아시아 共通文化論의 궤적>은 매우 시의적절한 테마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논문을 一讀하고 난 후에 평자는 저자들이 ‘동아시아’가 지리상의 개념일 뿐, 역사와 문화 등에서 어떤 공통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느꼈다.

이 논문은 戰後 일본의 학습지도요령과 세계사 교과서가 ‘동아시아 공통문화론’을 어떻게 설정하고 기술해왔는가를 網羅的으로 검토하고, 그 배경에 戰前 일본의 아시아주의자들이 주장해온 ‘동아시아 共通文化論’이 伏流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아시아주의자들은 일본과 동아시아를 포괄하는 연대 개념을 창조하려고 역사와 문화의 공통성을 탐색하는 데 열심이었다. 그리고 아시아주의는 전후 미국에 대한 종속에서 이탈하려는 의도를 가진 민족주의와 반미사상을 가진 학자들에게 계승되고, 그들은 세계사 교과서를 무대로 하여 ‘동아시아 문화권’이나 ‘동아시아 세계’ 등의 개념을 유지하기 위해 공통의 문화내용이나 친화관계를 주장하는데 진력했다.

그런데 山内昌之와 古田博司는 동아시아가 다종다양한 모자이크 같은 國家群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통의 문화 개념이 존재하기 어렵다고 본다. 결국 나아가서, 저자들은 보편성이나 통일성을 지향하는 근대가 종말을 고하고 포스트모던의 시대가 된 지금은 잃어버린 보편성이나 통일성에 대한 ‘안쓰러운’ 향수를 버리라고 충고한다. 그리고

아시아주의의 궤적을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학습지도요령과 세계사 교과서의 ‘동아시아 공통문화론’은 진즉부터 용도폐기의 운명에 처했다고 痛駁한다.

평자는 이 논문을 통해 일본의 학습지도요령과 세계사 교과서가 ‘동아시아사’를 어떤 시각에서 취급해왔는지를 대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학습지도요령과 세계사 교과서의 일치와 차이, 세계사 교과서에서 야마카와출판사(山川出版社)가 차지하는 압도적 비중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아래에서는 극히 상식적인 의문점을 한두 가지 제기하면서 평자로서의 작은 소임을 다 하고자 한다.

일본의 세계사 교과서는 제한된 분량의 지면에서 세계의 역사를 망라해야 하는 원천적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럴 경우 세계의 여러 지역을 몇 개의 문화권으로 나누어 장절을 구성하고, 다른 문화권과 구별되는 특색을 기축으로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물론 역사학의 연구성과가 이것을 뒷받침해야 한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과 세계사 교과서가 ‘동아시아 문화권’을 설정한 것은 이런 사정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戰前의 ‘아시아주의’와 전후의 학습지도요령 및 세계사 교과서가 서로 연결된 것이라면 상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人間的·學說的 연결고리 등을 좀 더 풍부하게 제시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 일부 세계사 교과서가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기술한 것을 ‘한국을 배려했다’거나, ‘교과서 검정의 근린조항’의 ‘족쇄’ 때문이라고 단정한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 ‘해동성국’은 당시 중국의 史書가 발해를 지칭한 용어이다. 그리고 ‘근린조항’은 근현대사의 기술에서 유념하라는 권고이다. 그렇다면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기술했다고 하여, 그것이 곧 한국을 배려했다거나 ‘근린조항’의 ‘족쇄’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자들은 ‘근린조항’을 대단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인다.

그밖에도 저자들은 일부 교과서가 唐의 문물을 ‘선진문물’이라고 기술한 것을 일본에는 없는 표현이라고 꼬집고, 일본에서 ‘선진’이라고 하면 서구 근대의 것을 가리킨다고 주장했다. 또 논문의 이곳저곳에서 당과 같이 체계적인 법전을 편찬·시행한 나라는 일본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것들을 아울러 고려하면 저자들은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특별히 발전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다른 나라를 뭉뚱그려 ‘동아시아 문화권’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2년 반 동안의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마침내 막을 내렸다. 발표와 토론을 통해 많은 교시를 준 저자들에게 감사한다.